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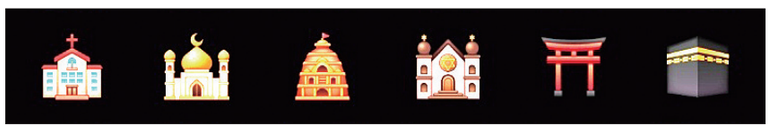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9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27일)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소외 이웃과 김장 김치 나눠요"**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지구장 장석희, 이하 대불청 전북지구)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한마당을 열었다. 대불청 전북지구는 12월 17일 김장김치 1000kg을 담가 전주 보리수마을 노인일자리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등 취약계층과 지역사회단체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불자 청년들이 지역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이에 불교청년회가 앞장서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삼성 갤럭시 이모지엔 '불교 사찰'이 없다

**갤럭시 스마트폰 그림문자 '이모지'**
**종교 장소 이모지에 사찰만 누락**
**기독교, 이슬람, 日신도 등만 존재**
**6개 이모지 있는 기독교와는 달리**
**불교 이모지 1개…현격하게 적어**
**불교계 "종단적 개선 움직임 필요"**
**삼성 "내부 논의 중… 입장은 無"**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 등록된 이모지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 이모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직접 캡쳐한 갤럭시 이모지들 중 '종교적 장소' 이모지 6종.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 등록된 이모지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사찰' 이모지는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물론 일본 토속종교 신도(神道)의 성소(聖所) 상징하는 이모지까지 제공되고 있어 불교계에서는 "사실상 '불교 패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효과적인 의사소통 도구로 이모지(Emoji)를 모바일 기기에 탑재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용자 피드백과 요구를 반영해 삼성전자 MX(모바일경험)사업부 UX(사용자경험) 팀에서 대대적인 이모지 디자인 개선을 추진했다. 표정, 장소, 동물, 깃발 등 8개 카테고리에 2200개의 이모지를 제작했고,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뉴스룸의 관련 홍보 게시물에 따르면 이 이모지들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모지"를 전제로 조사와 연구를 거듭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모지 디자인 담당자들은 "삼성전자만의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인종, 국적, 나이 등에 상관없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이모지를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삼성전자의 이모지 디자인 방향성은 직업의 성평등과 연령층의 다양화로 구현됐지만, 정작 종교적인 측면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장소 카테고리에 속하는 '종교적 장소' 이모지에는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교의 예배당인 '모스크'와 대표 성지인 '카바 신전', 유대교 회당인 '시나고그', '힌두교 사원', 일본 토속종교인 신도의 건축물인 '토리이(鳥居)' 등 6곳만 검색될 뿐, 불교 '사찰' 이모지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삼성전자는 국내 브랜드평판지수 1위 기업이자 43개국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대표기업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 5억명 이상의 신자를 보유하고, 국내 종교 순위 1, 2위를 다투는 불교의 사찰 이모지를 누락한 것은 고의 여부를 떠나 '특정 종교 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불교'를 나타내는 이모지 역시 타 종교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6개 이모지가 도출되는 '기독교'와 달리 '불교'를 상징하는 이모지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법륜(法輪)'이 유일하다. 기독교 관련 이모지는 라틴·정교회 십자가, 교회 2곳, 천사, 묵주로 가장 많았고 모스크, 카바 신전, 월성기(이슬람교 상징, 초승달과 별), 터번을 쓴 인물 이모지가 검색되는 이슬람교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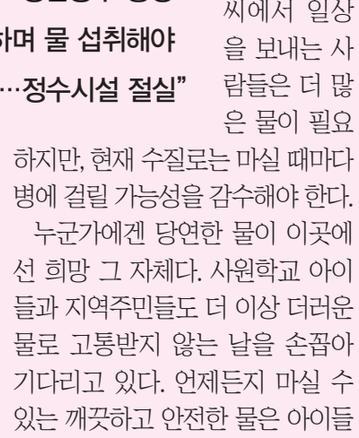
이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은 "한국인의 10명 중 7명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쓴다. 그런데 불교 이모지만 배제됐다는 건 다종교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종교 규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 어떤 종교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 특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향문 스님은 "글로벌 기업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전자가 불교 사찰 이모지를 누락한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모지에서 불교 관련 이모지만 제외된다면 향후 한국불교 발전과 포교에 큰 장애로 작용한다. 개선을 위한 종단적 움직임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홍보팀 관계자는 "관계 부서에 전달해 내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아직까지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로터스월드 · 현대불교신문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 "544명의 미얀마 아이가 안전한 물을 기다립니다"



모곡 사원학교 교실 내부.

미얀마 양곤 시내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 흘라잉따야 타운십. 그곳에 자리한 모곡 사원학교(Mogok Monastery School)에는 544명의 학생이 배움과 불교적 가르침을 통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곳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아이들로 구성돼 있는데 그중 33명은 스님으로서 수행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스님 가운데 10명은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배움터에 스님과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깊은 걱정거리가 남아있다.

바로 물 문제다. 미얀마 사원의 특성상 학교는 불자들의 후원과 탁발로 스님들의 식사를 해결한다. 그러나 물 문제는 후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양곤 위치한 모곡 사원학교**
**상수도 없어 우물로 생활용수 충당**
**수인성 질병 감내하며 물 섭취해야**
**"깨끗한 물은 희망…정수시설 절실"**

사원학교에는 상수도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우물을 파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충당하고 있다. 이마저도 부족한 물은 항아리에 담아 보관했다가 침전물을 가라앉혀 사용하는데, 이는 위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과 스님들이 매일 이 물을 마시며 생활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강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우물물은 시설 주변 위생 환경이 취약하고 비위생적인 관리로 오염되기 쉽다. 침전물을 제거한다고 해도 물속 세균과 유해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수인성 질병의 위험도 높다. 실제 학생들은 설사병이나 장염 등 온갖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간 오염된 물을 섭취하면 신장병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이 지역 지하수는 석회수가 대부분인데, 물속에 포함된 과도한 미네랄 성분이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석회수는 물의 경도를 높여 조리와 세척에 불편하고, 식수로 사용할 경우 신장결석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물 문제는 단순히 학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원학교 근처에는 3000가구, 약 1만20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 모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절실하다. 연평균 기온 27도를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은 더 많은 물이 필요하지만, 현재 수질로는 마실 때마다 병에 걸릴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물이 이곳에선 희망 그 자체다. 사원학교 아이들과 지역주민들도 더 이상 더러운 물로 고통받지 않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은 아이들의 건강,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모곡 사원학교 지역조사를 담당한 김두환 로터스월드 미얀마 지부장은 "깨끗한 물은 생명이자 희망"이라며 "사원학교에 정수시설이 갖춰져 아이들과 스님들이 건강을 지키고, 수행과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문의 : 로터스월드(02-725-4277)**
**후원 계좌 : 기업은행 636-024138-01-015 (사)로터스월드**

육조정맥선원
www.zenparadise.com

# 생사해탈을 위한 '3년결사안거' 모집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하에 수행하면
반드시 3년 안에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방각서 : 3년결사안거 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의와 불만을 절대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그 어떠한 벌칙도 감수하겠습니다.



1000명 앞에서 좌탈입망하신
전강 전법 대선사

지금 불교계에 스승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선 대원선사는 현재 90의 연세로, 64년 전인 26살 때부터 120세까지 수명을 정해놓고 사시면서, 간절히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들을 위해서 직접 죽비를 잡고 내 마음을 찾아 마음이 내가 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기 위하여 '3년결사안거'를 단행하고자 하십니다.

농선 대원선사의 법사이신 전강선사는 1000여 명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법상에 올라 법문하신 후, 앉은 자리에서 열반에 드셨고, 은사이신 해인사 인곡선사도 나고 죽음을 자재하셨으며, 농선 대원선사님 지도하에 공부한 제자 소진추, 전대각월 불자님도 좌탈입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생에 반드시 내 마음을 알아 생사해탈한다는 특달한 각오로 3년 동안 입출퇴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농선 대원선사의 지도를 따른다면, 누구라도 승속과 종파를 초월해 입방하여 반드시 마음이 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만 끊어지면 내 부모 처자식은 그만두고 내 몸마저도 한 점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참나이겠습니까?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을 지닌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입방요건 : 나이 (30~60대 남 · 녀) / 정신적, 신체적 건강한 분 / 제출서류 (입방각서, 건강진단서) / 접수기간 2024. 09. 01 ~ 2025. 12. 31 / 문의 010-8670-1445

# 자승 대종사 1주기 "부처님 법 전하겠습니다"

**11월 17일 봉은사서 다례재 봉행**
**진우 스님 등 1000여 명 한자리에**
**'한국불교 중흥' 유지 계승 다짐**
**생전 발언·법문 묶은 서적 봉정식**
**학생 108명에 상월장학금 전달식도**

김가령 기자 gugoose66@hyunbul.com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상월경사 회주로 수행전법의 가치를 대중에 전하다 지난해 11월 29일 원적에 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1주기 다례재가 거행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1월 17일 경내 법왕루에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원적 1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 1000여 명이 참석해 자승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전법 원력을 계승·구현시킬 것을 다짐했다.

이날 다례재에서는 자승 대종사가 생전에 남긴 글을 간추린 서적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을 대종사의 영전에 올리는 봉정식도 진행됐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은 자승 대종사가 총무원장 재직 시절 남긴 1000여 개 글 중 대종사가 직접 간추린 115개 글로 구성됐다. 또한 대종사가 2022년 봄부터 2023년 봄까지 간추린 글 115개에 직접 첨언해 완성했다. 2023년 여름까지 마지막 교정과 감수를 마친 자승 대종사는 출간을 보지 못하고 입적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자승 대종사는 유위세계의 연기적 흐름에서 이(理)와 사(事)를 아우르며 한국불교와 조계종이라는 집단의 향배에 선연이라는 바라밀행 수행으로 승화시켰다"면서 "현상이라는 분별세계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으로 결정지어나가며 진여(眞如)라는 참수행의 끈을 늘 놓지 않았다"고 자승 대종사의 행적을 되새겼다.

이어 '수행의 해봉에 한점 구름 되시어, 금강의 전법으로 만리에 향기 전하시네(修行海峯一點雲. 金剛傳法萬里香)'라는 시를 읊으며 "후학들은 자승 대종사가 남긴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실천 수행의 가르침을 사명이자 책무로 받아들여 길이길이 지남(指南)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 1주기 다례재에서는 저서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 봉정식이 진행됐다. 사진은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을 영전에 봉정하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자승 대종사는 말씀을 적게 하셨지만 그 말마다 낙처(落處)가 있어 경종을 울렸다"면서 "대종사의 원적 1주기를 맞아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호계원장 보광 스님은 "자승 대종사는 한 곳에 계시더라도 늘 대한민국과 세계평화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으셨다"며 "늘 바른길을 일러주던 자승 대종사의 원적으로 한국불교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도들의 노력으로 종단이 잘 이어지고 있다"고 추모했다.

자승 대종사의 재적 사찰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대종사의 뜻을 더 멀고 높이 꽃 피우는 것이 할 일이라 생각해 그 방법을 늘 연구하고 있다"며 "한국불교 발전과 부처님 법 전하는 데 힘이 되도록 문도스님들과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허운 스님은 "아직도 대종사의 원적이 믿기지 않고 가슴이 먹먹하지만, 대종사가 남긴 은혜와 따듯함은 아직도 남아 우리에게 길을 일러준다"며 "대종사의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례재를 주관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대종사 원적 2주기에 대종사의 부도탑을 완성하고 경내에 조성할 계획임을 전했다. 원명 스님은 "생전 자승 대종사가 몸소 보여준 한국불교를 위한 원력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호영·정청래·김병주 국회의원들은 자승 대종사 생전에 함께 했던 인연을 밝히며 국회의원으로서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좌표 삼아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자승 대종사는 담대하고 능수능란한 모습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하셨다"면서 "그 자세를 이어받아 민생 안정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랜 시간 한국불교에 애정과 관심을 가진 정치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새기고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다례재에서는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하며 대학생 전법에 귀감이 되는 108명의 학생들에게 '상월장학금'이 수여됐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36명으로 이뤄진 3개 조의 대표 학생들에게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자승 대종사는 대학생 전법을 현 시대 한국불교의 과제로 삼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라는 기치 아래 사부대중의 발심과 정진을 당부했다"고 말하며 자승 대종사의 1주기에 참석한 사부대중에 감사를 전했다.

##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

**"종단과 교화 발전 앞장" 소감**



불교총지종 제21대 통리원장에 현 통리원 총무부장 록경 정사(총지사 주교, 사진)가 선출됐다. 임기는 12월 27일부터 3년이다.

불교총지종은 11월 19일 통리원에서 제170차 중앙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를 열고 새 통리원장에 록경 정사를 선출했다. 불교총지종이 통리원장을 지명하면 종의회에서 인준 절차를 걸쳐 선출된다.

선출 직후 록경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종조님께서 열어놓으신 훌륭한 법문과 수승한 밀법의 진리에 의지하여 종단과 교화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종령 예하를 비롯한 우리 스승님들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따르며, 총지종이 더욱 번창하는 종단으로 나아가는데 힘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 "출가 장려 위해 성과 내는 곳 지원을"

**출가장려위원회 5차 회의 개최**
**군종병 연수서 출가자 4명 배출**
**종립학교 '선연'서 출가 이어져**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위원장 혜일 스님)는 11월 18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출가장려 사업별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서는 단체와 사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다양한 사업들 중 실제 출가수행자를 배출한 사례가 공유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군종특별교구는 5월 10~13일 성남 밀리토피아에서 진행한 군종병연수교육 '슬기로운 출가생활'에서 특강, 토크 콘서트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군종병 연구교육 이후 제대한 총 4명의 용사가 출가를 결심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수의 병사가 해당 부대 법사에게 출가 관련 문의 및 상담이 이어지기도 했다.

군종특별교구 측은 "참여한 군종병 대부분이 후임에게 군종특별교구에서 진행한 군종병 연수교육을 추천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일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기간을 늘려달라,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에 정례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종특별교구는 2025년 5월에도 군종병 100명을 대상으로 모범군종병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립학교 출가종책인 '선연(善緣)'도 관심을 모았다. '선연'은 불교핵심인재계발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전국 불교종립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불교교육과 체험을 통해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찰 순례 등을 통한 불교교육과 명상, 문화 활동 등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동대부고와 참좋은이서고, 광동고, 청담고 등에서 9명이 소년출가를 희망하고 있다.

권진영 동국대부속영석고 교법사는 "많은 참가 학생들이 동국대 불교학과 진학을 희망하거나 군승 내지 군종병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소년출가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향후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고 내용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불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불교 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해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내년 1월 3기를 준비 중인 봉녕사 '단기출가학교', 해인사 '청년객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출가가 이루어지는 성과를 낸 단기출가학교를 권역별로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해야한다"면서 "별도를 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중 선정, 출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회의에 앞서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포교분과위원장 가섭 스님, 전국비구니회 총무부장 돈각 스님이 신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은호 기자

## 대종사·명사 법계 심의건 만장일치 통과

**11월 20일, 제77차 회의서 통과**
**정부에 대한체육회 입장 전달**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자광 스님)가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 법계 특별전형을 심의하고 대상자 전원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원로회의는 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대종사 및 명사 법계 특별전형 심의의 건'을 주요 안건으로 제77차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환성 스님·혜강 스님(직할교구) 등 27명이 대종사 법계를 받는다. 선광 스님(월정사) 등 6명은 명사 법계 품수를 받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은 불기2568년 갑진년 한해를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불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바쁘게 보냈다"면서 "국민 마음평안을 위한 선명상의 활성화,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 사회 곳곳의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중포교 활동을 펼쳐왔고 불자뿐 아니라 세대와 국적을 불문한 일반 대중들에게도 친근하고 포용력 있는 K-선불교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개회사에서 "눈코 뜰 사이 없이 불철주야 업무를 수행 중인 총무원장 스님의 모습에 늘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 11월 8일 원적한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 대종사를 추모하고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지난 4월 76차 원로회의에서 새롭게 원로의원으로 선출된 돈명 스님과 종우 스님, 종열 스님은 의원 선서를 통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종헌 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원로회의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삼보 전에 서원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최근 대한체육회 상황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기타안건에서 논의, 원로회의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임은호 기자


## 전국민 하루 5분 선명상 캠페인

**- 세상과 나의 평화를 위한 실천 -**

'하루 5분 선명상'과 함께 지금, 바로 여기에서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여정을 떠나보세요.

**선명상 공식 어플리케이션**
언제 어디서나 '하루 5분 선명상'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 '선명상'을 검색해 보세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선명상 홈페이지**
선명상에 관한 최신 정보를 얻고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선명상TV 유튜브 채널 개설**
유튜브에 '선명상TV'를 검색해 보세요. 다양한 선명상 콘텐츠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어플에서 매일 5분 명상체험 스탬프를 80% 이상 하시는 경우 매월 추첨을 통해 5명에게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드립니다.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737-0862



# “불교유산 戰時 관리 정책 전무, 대책 필요”

**조계종 문화부 · 불교문화유산硏 ‘韓전쟁과 불교유산’ 학술대회**
**전쟁시 문화유산 관리 언급 無**
**배기동 회장, 푸른방패위 소개**
**중요 문화유산 ‘푸른방패’ 표식**
**유사시 적국 공격서 제외 ‘예방’**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유산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전쟁과 불교유산’ 학술대회는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유산 사례를 살피고 보존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된 한국전쟁은 국토를 초토화 시켰고, 불교문화유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월정사, 봉선사, 건봉사 등이 전소됐고, 김천 쌍계사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등이 소실됐다. 부처님 말씀을 담았던 목판 경판들도 전쟁으로 인해 사라졌다.

한국전쟁은 전시(戰時) 문화유산 관리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 계획에 전쟁 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배기동 푸른방패한국위원회장(한양대 명예교수)은 11월 20일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유산-역사적 기록과 미래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의 기조발표에서 전시 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배 회장은 ‘한국 동란의 경험과 불교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제도’를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한국은 전쟁에 대비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배 회장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전소된 사찰은 185개소에 달한다. 당시 전쟁 중 문화유산에 대한 고려나 중요성에 따르는 판단은 거의 없었던 셈”이라며 “한국전쟁 과정에서 적군의 거점을 없애자는 의도로 유엔군과 국군, 경찰에 의한 불교문화유산의 훼손이 더 많았다는 점은 전쟁 시 문화유산 관리지침과 원칙을 만들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국가유산재난안전관리 5개년 계획안에 전시 문화유산 관리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주로 화재, 홍수해, 흰개미 피해 등을 주요한 재난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전쟁은 가장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문화유산 훼손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안일한 관리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회장은 ‘푸른방패위원회’를 소개했다. ‘푸른방패위원회’는 국제박물관협회, 국제도서관협회, 국제아카이브협회, 국제유적유산위원회가 중심이 된 조직으로, 1954년 헤이그 협약의 실행을 위한 비정부국제기구다. 헤이그 협약은 전쟁으로 인한 문화유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네스코 주도로 체결됐다. 현재 133개국이 가입했지만 한국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푸른방패위원회는 전쟁 시 문화유산 관리 방법, 전략과 군대와의 전술적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가 중요 문화유산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목록화하거나 표식을 부착해 문화유산이 공격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배 회장은 전시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서 ‘헤이그 협약’에 한국 정부가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배 회장은 “한국은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로 헤이그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전쟁을 통해 많은 문화유산의 멸실을 경험하고 현재에도 휴전 중인 상황을 감안하면 헤이그 협약 가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국대, 중앙일보 대학평가 4년간 ‘톱10’

**2024년 대학평가서 9위 기록**
**고교생 선호 대학 5위 기록해**

동국대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4년 연속 ‘톱10’을 기록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11월 19일 발표된 2024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를 기록하며 4년 연속 상위 10개 대학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교육여건 10위 △교수연구 15위 △평판도 10위 △학생성과 9위 등 전체 평가 영역에서 고르게 약진하며 종합순위 9위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윤재웅 총장 취임 2년 차를 맞은 동국대는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톱10을 기록, 올해는 9위를 기록하며 톱10 대학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동국대는 교육여건 부문에서 이전보다 순위가 16계단 상승했고, 4년 연속 종합순위 톱10 달성으로 이어졌다. 학교법인 및 건학위원회와 함께 학생 장학금을 대폭 늘려온 동국대는 특히 신설 지표인 학생 1인당 장학금은 9위를 기록했으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 순위도 작년 대비 10계단 상승했다.

글로벌 관련 지표에서도 △외국인 교수 비율 4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8위 △외국대학 학점 교류 15위 등 전체적으로 고르게 약진해 10위에 올랐다. 교수연구 부문에서도 동국대는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7위 △교수당 외부 연구비 9위 △교수당 국제학술지 논문 11위 △인문사회 교수당 국내논문 8위 △인문사회 교수당 저역서 8위를 기록했다. 또한, 신설 지표인 국제협력 논문에서도 12위를 기록하는 등 교수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음을 보여줬다.

동국대는 신설 지표인 고교생 선호 대학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학부모 진학 선호 대학 9위 △특성화 우수 대학 6위 △기업 신입사원 선발 선호 대학 10위를 기록해 대학교육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가 확대·개편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 달성 및 4년 연속 탑10에 안착한 가장 큰 요인은 학생장학금 등 교육여건과 교수연구 역량, 글로벌 역량, 그리고 평판도 역량이 모두 탄탄해졌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특히 교육여건 관련 지표가 크게 개선된 점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하는 책임감 있는 대학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라며 “동국대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며 글로벌 명문대학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중일 기자

# 30돌 교정인불자聯 “MZ 포교, 수용자 전법으로 재도약”

**‘전국교정인불자聯 30돌 기념법회’**
**11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서**
**전국 지회 100여 명 참석해**



전국교정인불자들이 연합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포교 매진을 다짐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교도소 수용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가 30주년을 맞았다. 어윤식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불자회원 수 감소로 침체된 조직을 위해 ‘MZ 포교’와 ‘수용자 전법’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회장 어윤식, 이하 교정인불자회)가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연합회의 3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인 동시에 조직 재도약을 다짐하는 법석으로 마련됐다.

어윤식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각 지회는 기존회원들의 정년 퇴임, 승진 전보 인사, 젊은 불자회원 감소로 위축되고 있다”며 “각 지회장들은 기존의 포교 방식에서 벗어나 ‘명상·템플스테이’ ‘5분 선명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젊은 불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님 가르침으로 수용자들에게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 참 불자의 자세”라며 “‘수용자 1인 1종교 갖기’ ‘불우수용자 돕기’로 수용자 전법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창립 30돌을 맞은 교정인불자회를 축하하는 출재가 지도자들의 인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치사에서 “여러분은 수용자 관리부터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 창립 30주년 행사를 통해 여러분의 역량이 한층 증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우수 회원들을 격려하는 표창장 수여도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에는 이희승 여주교도소 교도관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중앙종회의장 표창에는 권영천 의정부교도소 교도관 외 4명이, 포교원장 표창에는 신용훈 강원북부교도소 교도관 외 4명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이은미(서울동부구치소) 씨 외 10명에게 교정인불자회 지도법사 표창장이 수여되며 그동안의 전법활동을 격려했다. 수여식 말미에는 어윤식 회장이 직접 지도법사 선타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민재 기자

# 체육인불자聯 “공정한 체육회장 선거를”

**“이기흥 향한 의혹 제기 멈춰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회장 문홍식, 이하 연합회)는 11월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내년 1월에 치러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체육회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차별 없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 간섭 없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합회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회장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체육계와 불교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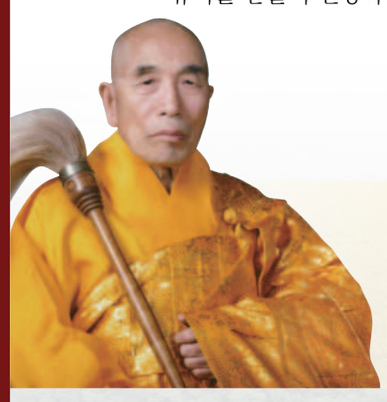
이어 “연합회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포츠계 발전과 국민 정서 함양에 기여해온 이기흥 회장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길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선거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민재 기자


#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 노천당 월하 대종사 유영집 『무영수無影樹』 봉정식

영축산 아래 내려앉은 달그림자 사이로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무진법문이 들려오는 계절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노천문도회에서는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합니다. 더불어 노천당 월하 대종사의 탄신 110주년이자 열반 21주기를 맞아,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을 담은 사진집 『무영수無影樹』를 봉정하는 뜻깊은 자리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대종사의 덕화를 기리고 유지를 받들어 선양하는 이 자리가 더욱 여법한 법석이 될 수 있도록 두루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 정 중봉 성파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 지 현 덕
(재)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일시 불기 2568(2024)년 12월 11일(음 11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문의 (재)영축문화재단 055)372-3722 홍성표 사무국장 010-4581-2597

제12회 영축문화대상 시상식
영축문화대상 수상자


학술문화상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위원)


포교원력상 장정화 (KYBA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봉사실천상 이정숙 (인성기공 부사장)

한 권의 사진집으로 엮은 월하 대종사의 생애와 가르침
노천당 월하 대종사 유영집 『無影樹무영수』




無影樹 그림자 없는 나무

한국불교의 법통과 영축총림 통도사의 전통을 계승한 선지식
천근만근 시은의 무게를 검박하고 절제된 삶으로 짊어졌던 수행자
불교정화와 종단개혁, 격동의 시대를 해쳐 온 대종사의 등불 같은 삶을 재조명

노천당 월하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무영수無影樹』 봉정식을 봉행합니다.

# 숭산 대종사 20주기…“대종사 유지 잇겠다”

**화계사 11월 18일 20주기 추모 다례**
**설정 대종사 등 350여 명 동참해**
**“모든 중생에 불법 알린 선지식”**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숭산당 행원 대종사 문도 대표인 성광 스님이 대종사 진영에 헌다하고 있다.

32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건립하고 1만여 명의 외국인 제자를 길러낸 해외 포교의 선구자 숭산당 행원 대종사의 열반 20주기를 기리는 법석이 마련됐다.

서울 화계사(주지 우봉 스님)는 11월 18일 경내 대적광전과 부도탑에서 ‘숭산당 행원 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하고 숭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는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제7교구본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 숭산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탄월 스님,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등 사부대중 350여 명이 동참했다.

숭산당 행원 대종사(1927~2004)는 1947년 마곡사에서 출가, 당대 선지식이었던 고봉 선사에게 참선을 배웠다. 수행 끝에 고봉 선사에게 전법을 받은 대종사는 광복과 6.25 전쟁 이후 혼란했던 종단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재무부장, 불교신문 초대 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불교 정화 운동에도 참여했다.

이후 숭산 대종사는 1966년 일본 홍법원(弘法院)을 세우며 해외 포교에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 영국, 프랑스뿐만 아니라 중국, 구소련 등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며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일평생 수행과 전법에 헌신한 숭산 대종사는 2004년 11월 29일 “걱정하지마라, 만고광명(萬古光明) 청산유수(靑山流水)다”는 말을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숭산 스님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전하겠다는 큰 원력으로 전법에 나선 선지식”이라며 “일평생을 ‘오직 모를뿐’이라는 화두로 선사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진리를 전 세계 중생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문도 대표인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은 “숭산 스님은 49년 동안 32개국에 120여 개의 선원을 세우고 1만여 명의 외국인 제자를 양성했다”며 “스님은 열반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아닌 일체중생을 위해 기도한 분”이라고 기렸다.

화계사 주지 우봉 스님은 “숭산 스님이 남긴 사리 중 사리는 여기 계신 회주스님과 그 뒤를 잇고 있는 제자들”이라며 “화계사 주지로서 숭산 스님의 제자분들이 법을 잘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례재를 마무리한 사부대중은 숭산 대종사의 부도탑을 참배했다. 참배 후 설정 대종사를 필두로 탑돌이를 하며 숭산 대종사의 자비를 되새겼다.

# 초심자 위한 수불 스님 조언 “선지식을 만나세요”

**11월 19일 서울 홍대선원**
**禪 초심자 즉문즉답 법회**
**준한 스님 “좋은 인연 기대”**


수불 스님은 선 초심자들을 위한 법사로 나서 선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화두를 들고 마음의 본질을 보는 수행인 ‘간화선(看話禪)’을 초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이하는 법석이 열렸다.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11월 19일 경내 5층 법당에서 ‘수불 큰스님의 초心자들을 위한 특별 법문’을 개최했다. 이날 간화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선(禪) 초심자들을 위한 법사로 나서 선 수행에 대한 초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대학생, 직장인 등 청·장년 불자와 대중스님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수불 스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청정한 것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림 없는 것”이라며 “더러운 것과 가까워졌다고 거기에 물들어 더러워지는 건 상대적 깨끗함이며, 물들지 않는 순수함만이 청정하고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불 스님은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내면에 불성을 가져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렇기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가까이하면 헤매지 않고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설명으로 법문을 열었다.

즉문즉답으로 진행된 법회는 참가자들의 끊이지 않는 궁금증으로 활발하게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불교를 쉽게 접하는 법’을 비롯해 ‘선지식이 필요한 이유’ 등 궁금증을 제시했다.

최근에 불교에 입문한 참가자는 어떻게 하면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을지 물었다. 수불 스님은 “불교는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전환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 누군가의 지도를 통해 배우고 이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회를 주최한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홍대선원에서 진행한 첫 초청법회다. 이 시간을 계기로 불교, 부처님과 좋은 인연을 맺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가령 기자

# K사찰음식, ‘글로벌 입맛’ 사로잡다

**‘조계사 사찰음식 나눔 시식회’**
**내외국인 300여 명 시식**
**건강, 맛 모두 잡아 ‘호평’**

“건강한 채소로 되어 있어서 참 좋았어요, 아름다운 절에서 다양한 사찰음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기뻐요!”

루마니아 출신 비올리나·블라비아 씨가 25가지의 사찰음식을 맛보고 밝힌 소감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는 11월 16일 경내 후원 공양간인 보현당에서 ‘조계사 사찰음식 나눔 시식회’을 열었다.〈사진〉 이날 행사는 ‘제14회 조계사 국화화엄축제’의 일환으로 외국인과 청년들에게 한국불교의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식회에는 동국대 글로벌 교류팀 교환학생,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학생, 조계사 청년회 회원 등 300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조계사 주지 원명 담화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준비한 사찰음식은 뿌리부터 줄기, 잎까지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제철 채소로 만든 것”이라며 “공양 맛있게 하시고 모두 건강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찰음식은 봄동 배추전, 묵은지 김치찜, 단호박 가지 튀김 등 25가지로 준비됐다. 사찰음식 장인 중제 스님이 손수 만들었다. 스님은 “오늘 대접해야 할 대중이 많아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게 대중적인 메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식회와 함께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도 열렸다. 관람객들은 주먹밥 만들기, 다도 시음 체험 부스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했다. 김민재 기자

# 도선사, 강북구에 쌀·김치 자비나눔

**11월 18일 강북구청 마당서**
**쌀 5t, 김장비용 3000만원**




도선사가 강북구에 쌀과 김장김치 비용을 전달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서울 도선사(주지 태원 스님)는 11월 18일 강북구청 마당에서 쌀 5t과 3000만원 상당의 김장 비용을 강북구(구청장 이순희)에 전달했다.〈사진〉 도선사는 매년 겨울, 강북구 취약계층을 위해 쌀과 김장 김치를 보시하고 있다. 금년은 공양간 불사로 김장 비용을 대신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과 이순희 강북구청장, 김학규 도선사 신도회장 및 사회복지법인 혜명 산하 기관장과 도선사 직영 어린이집 원장 등이 함께 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올해도 자비나눔을 통해 쌀과 김장 김치를 취약계층에 전할 수 있어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재 기자

# 전국여성불자회, 김장으로 온정 전해

**11월 16일, 조계사 경내**
**김장축제 성황리 마무리**



전국여성불자회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를 가족과 이웃에게 나눴다.

전국여성불자회는 11월 16일 오후 2시 30분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2024 김장은 축제다’를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축제에는 전국여성불자회 회원 70여 명과 자립준비청년 30여 명이 참여해 총 2000kg의 김치를 담갔다.

김의정 전국여성불자회장은 “김장은 가족과 이웃을 이어주는 매개체이자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정성껏 담근 김치가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장 김치 중 1300kg은 미혼모 시설과 청소년쉼터 등 서울지역 9개 시설로 전달됐다. 정현선 기자

# ‘선명상’ 왜,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본부 〈선명상 길라잡이〉 엮어**
**친근한 설명 · 쉬운 실천법 제시**
**현대인을 위한 명상 가이드 북**




2024년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선명상’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은 해이다. ‘마음 치유를 위한 사회적 정진을 본격화’하자고 선포한 것. 그 일환으로 사부대중을 위해 여러 차례 법회와 강연을 했고, 9월 28일에는 3만여 불자들이 결집한 ‘불교도 대법회 국제선명상대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도 했다.

조계종 미래본부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25일부터 8월 20일까지 8회에 걸쳐 선명상의 본질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친절히 안내한 〈선명상 아카데미〉 강좌를 책으로 엮었다.〈사진〉

〈선명상 길라잡이〉는 제목에 걸맞게 선명상의 이론과 실천법을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선’이나 불교, 명상 등이 낯선 젊은 층은 물론 지식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양철학과 최첨단 양자역학적 관점을 많은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선명상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안내한다.

책을 펴낸 조계종출판사는 “불교 교리나 종교색이 전혀 없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무시로 선명상을 접하고 고락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만 2000원. 임은호 기자

# 중신회, 라오스 어린이에 물품 후원

**11월 4일 서울 대우건설 회장실서**
**40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 전달**




중앙신도회가 불교국가인 라오스 어린이를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정원주)는 11월 14일 서울 대우건설 회장실에서 ‘라오스 어린이를 위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약 4000만원 상당의 아동의류를 주한 라오스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사진〉 해당 물품은 중앙신도회가 지난 10월 만화 캐릭터 ‘티니핑’으로 유명한 SAMG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약 6억원의 아동의류를 후원받아 마련한 것이다.

중앙신도회는 후원받은 아동의류를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복지시설과 아동관련 기관을 통해 어린이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 미혼모 시설과 미얀마, 스리랑카 등 국내 이주민 법당에도 자비행을 펼칠 예정이다.

정원주 회장은 “라오스를 시작으로 불교국가 어린이들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것”이라며 “11월 말에는 인도에 가서 현지 사찰을 통해 직접 후원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 종로노인복지관, ‘장금이학교 2기’ 회향

**상반기 이어 하반기 6회기 진행**
**“醬, 12월 유네스코 등재 예정”**



우리 전통 장(醬) 문화를 널리 알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장금이학교’가 2024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산하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스님)은 노인을 대상으로 장 문화를 교육하는 ‘장금이학교’를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했다.〈사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올해 12월 한국의 장 담그기 전통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런 시류에 따라 우리 장 문화 부흥, 복지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발전이 이뤄지기 위해 장금이학교에 많은 참여자가 유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가령 기자

# 대불련 중앙회장 후보에 유주연 지부장

**12월 27~28일 정기총회서 선출**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3년차(2025년도) 중앙회장 후보자에 유주연 창원지부장〈사진〉이 단독 출마했다. 대불련 회장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경목)는 “11월 9일 진행된 논의 결과 2025년 제63년 차 대불련 중앙회장으로 유주연 창원지부장을 선출했다”고 공고했다.

유주연 후보자는 인사말에서 “불교와 인연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인 신행활동은 대불련을 만나서부터 시작했다. 불교동아리 활동으로 점차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며 “중앙회장에 도전할 수 있게 많은 인연이 도와줬다. 앞으로 포교와 전법에 힘쓰고 새롭게 불교를 접한 대학생 청년 법우들이 즐거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는 12월 27~28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기자

# “근대제주불교 인물 ‘김석윤=운 대사’ 주장 근거 無”

**봉려관불교문화硏 제4차 학술세미나**
**혜달 스님, 봉려관 관련 학설 반박해**

**봉려관에 가사 내린 운 대사, 확인 안돼**
**“김석윤 결혼한 보천교도…法전수 불가”**
**관음사·법정사, 봉려관 스님 단독 창건**

**봉려관, 수계처 대흥사 호혜적 관계 조명**
**수계 후 ‘대흥사 포교사’ 임명 받고 입도**
**호남거부 국채웅 장녀 봉려관 문하 출가**

제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은 11월 16일 제주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근대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Ⅳ’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합토론이 진행되는 모습.

근대제주불교를 이끈 인물로 알려진 김석윤이 ‘운 대사’ 였으며, 관음사·법정사 창건이 김석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는 연구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봉려관불교문화연구원장 혜달 스님은 11월 16일 제주테크노파크 세미나실에서 열린 ‘근대제주불교역사 그 진실을 찾다Ⅳ’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근대 제주불교의 왜곡상 고찰’을 통해 봉려관 스님 관련해 왜곡·전파되고 있는 기존 학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혜달 스님은 일련의 연구들이 과도한 ‘봉려관 지우기’가 만들어낸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혜달 스님은 △한라산 관음사 1908년 창건설 △관음사·법정사 봉려관 스님·김석윤 공동 창건설 △‘김석윤=운 대사’였다는 한금순 제주대 박사의 기존 연구들을 봉려관 스님 기록들과 교차 비교하며 비판했다.

### 관음사 창건연도는 ‘1909년’이 맞다

‘관음사 1908년 창건설’에 대해 혜달 스님은 “1909년 창건”이라고 주장했다. 스님에 따르면 1908년 창건 기록은 ‘법화사 봉려관 비명(1943)’ ‘탐라기년부록(1952)’ 두 가지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자료인 ‘관음사 봉려관 비문(연도 미상)’ ‘두륜산인관음사사적기(연도 미상)’ ‘유관음사지(1917)’ ‘한라산 순례기(1930)’ 등에서는 1909년으로 기술돼 있다.

혜달 스님은 “한금순 박사는 여러 저술에서 관음사의 창건연대를 1908년으로 기술하고 있으나 1908년을 증명할 자료는 부재하다”며 “관음사 봉려관 비문 등 다수의 앞선 기록에는 1909년, 1909년 봄으로 기술하고 있어 실제 관음사는 1909년 봄에 창건된 것을 숙지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자료는 봉려관 스님 생존 시 자료이며, 스님의 증언을 글로 남긴 것이어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관음사와 법정사를 봉려관 스님이 창건하며 김석윤의 도움으로 창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혜달 스님은 ‘봉려관 스님의 단독 창건’임을 분명히 했다.




혜달 스님이 ‘근대 제주불교의 왜곡상 고찰’을 발표하고 있다.



민순의 연구원이 ‘봉려관 스님과 대흥사의 교류’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수 동국대 객원교수는 국채웅의 생애와 실천행을 살폈다.

‘사찰 창건에 김석윤의 도움이 있었다’는 기록은 김석윤의 동생인 김석익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1949)〉에만 남아있다. 하지만, ‘관음사 봉려관 비문’ ‘봉려관의 관음사(1937)’ ‘유관음사기(1917)’ ‘제주도 아미산 봉려암의 기적(1918)’ ‘영주 기행(1924)’ 등 10여 개의 기록에는 관음사와 법정사 창건자가 모두 봉려관 스님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게 혜달 스님의 주장이다.

혜달 스님은 “‘유관음사기’에는 1917년 김형식이 관음사에서 1박을 하며 봉려관 스님과 나눈 대화가 실려 있다. 당시 봉려관 스님은 김형식에게 ‘5~6년에 걸쳐 수백 명의 시주를 받아 관음사를 창건했다’고 술회하고 있다”면서 “1909년 봄은 김석윤이 수감 중인 상황이어서 관음사 창건에 끼어들기 어렵다”고 기존의 ‘김석윤 도움’ 학설을 반박했다.

### 보천교도가 스님에 가사 전수 가능?

이와 함께 혜달 스님은 김석윤을 ‘운 대사’로 주장한 학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운 대사는 봉려관에게 가사를 전해 준 노승(老僧)으로, ‘관음사 봉려관 비문’ 등에는 “1908년 단옷날 남달리 보이는 운 대사라는 스님이 있었다. 운 대사는 ‘그대를 찾은 지 오래됐는데 오늘에야 다행히 만나게 됐다’라면서 가사를 내어줬다”고 기술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등 기존의 연구 저작과 논문에는 “김석윤은 1894년 출가 이후 ‘상운’이라는 법호로 관음사 창건 이전부터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일운동에 참여해 금기시 되어 버린 김석윤을 동시대 승려들이 은밀하게 ‘승운 대사’ ‘운 대사’로 표현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혜달 스님은 “김석윤은 1907년 이미 부인과 자식을 둔 속인이었고, 봉려관에게 가사를 내어 준 시기인 1908년 김석윤의 나이는 31세로 ‘노승’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혜달 스님은 “봉려관 스님이 운 대사에게 가사를 전수받은 기록은 ‘관음사 봉려관 비문’ 등 5건으로 이중 ‘한라산 관음사 법당 중건 상량문’을 제외하면 모두 스님이 생존했을 당시 기록과 증언으로 신빙성이 높다”며 “하지만 이들 기록 어디에도 운 대사가 누구라는 지칭이 없어, 현재로서는 단정할 인물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혜달 스님은 김석윤이 신봉한 ‘미륵교’가 ‘증산교(보천교)’ 계열임을 분명히 했다. 혜달 스님에 따르면 동생인 김석익이 쓴 〈망형석성도인행록〉에는 1909년 이후 김석윤이 “보천교를 심복(心服)했고, 다시 미륵교로 바꾸었는데 미륵교 또한 보천교에서 파생된 세력이다. 일찍이 고향을 떠나 정읍군에 살다가 동곡으로 옮겨 살았는데 모두 심복하던 종파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혜달 스님은 “제주를 떠난 김석윤은 정읍과 동곡 등에서 강증산을 미륵불로 섬기는 보천교 계열의 미륵교의 신봉자였다”면서 “김석윤이 신봉한 미륵교는 기존의 주장처럼 불교의 미륵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금순 박사는 김석윤이 1934년 제주정실 월정사의 주지였다고 주장하는데, 1935년 증산계 미륵교 지로사 김형오가 정실 월정사에서 미륵교 포교에 나선다. 그렇다면 김석윤은 제주에서도 증산교도에게 장소를 내어준 것”이라고 지적하며 “더불어 1942년 제주 미륵교(증산계) 사건과 1949년 김석윤의 행적 등은 다른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혜달 스님은 “향후 근거없이 서술한 근대 제주불교사 및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사에 대해 기존자료에 근거하고 사실관계를 판단해 대중에게 내놓을 것”이라며 “근대 제주불교 역사가 사실의 역사로 제자리할 때까지 후속작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

### 봉려관 스님 다양한 역사적 면면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봉려관 스님의 수계사찰인 대흥사와의 관계와 제자였던 국성해 스님의 부친인 호남 거부 국채웅을 조명하는 연구논문들도 발표됐다.

민순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봉려관 스님과 대흥사의 교류’를 통해 봉려관 스님의 수계인연과 대흥사의 제주 포교 등을 조명했다.

민 연구원에 따르면 봉려관 스님은 1907년 대흥사 산내 암자 청신암에 주석했던 비구니 유장 스님을 은사로, 대흥사의 청봉 봉성 화상을 계사로 수계했다. 봉려관이라는 법명과 해월이라는 법호는 계사인 청봉 화상에게서 받았다.

민 연구원은 “봉려관 스님과 대흥사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이었을 것”이라며 “대흥사는 관음신행과 치유력에서 남다른 풍모를 보인 봉려관 스님을 알아차리고 인정해, 스님을 대흥사에서 수행해 본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포교사로 임명해 귀향케 함으로써 봉려관 스님의 대중 교화의 가피 속에 대흥사의 기풍 또한 펼쳐나가기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동국대 객원교수(불교신문 편집국장)는 ‘일제강점기 호남 부호 국채웅의 생애와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채웅의 생애와 실천행을 살폈다.

호남의 대지주였던 국채웅은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펼쳤다. 그에게는 1녀 4남이 있었는데, 이중 장녀 국추는 봉려관 스님 문하로 출가해 ‘성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국채웅은 봉려관 스님과 제주불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이 교수는 “국채웅은 장녀가 출가해 비구니 성해 스님이 된 것을 계기로 제주 관음사 중창불사에 기여했다”면서 “교육을 통한 계몽과 전통문화 전승에 노력했던 국채웅에게 불교 후원이 전통문화 보존 운동의 또 다른 형태였고, 민족 정체성 유지의 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남춘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법진 스님,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탁효정 순천대 연구교수와 발제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제주 금붕사 회주 수암 스님(전 태고종 제주종무원장)과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장 혜묘 스님, 보덕사 주지 재효 스님을 비롯해 전영준 제주대 사학과 교수, 강상무 법정사항일운동 유족회장, 오영호 봉려관선양회 상임이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문서번호(2024-1 1-20)

##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 선출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동으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 바, 이런 역경을 달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정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법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 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비합3002 종회의원 선출 허가신청의 건으로 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종회의원 선거 공고 및 각 교구별 종회의원 배정 의석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확정받은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대한불교원효종 종회의원의 선출 일정 및 절차**

**1. 각 교구별 종회의원 정수 배정 (의석수)**

| 교구 | 종도수 | | 충원 | 배정 의석수 |
|---|---|---|---|---|
| | 2008년 이전 승적취득자 | 2009년 이후 승적취득자 | | |
| 충북 | 7 | 4 | 11 | 2 |
| 전남, 전북, 광주 | 14 | 1 | 15 | 2 |
| 부산 | 13 | 4 | 17 | 2 |
| 충남, 대전 | 11 | 5 | 16 | 2 |
| 경북, 대구 | 21 | 7 | 28 | 4 |
| 경기, 강원 | 6 | 3 | 9 | 1 |
| 경남, 울산 | 13 | 8 | 21 | 3 |
| 제주 | 8 | 7 | 15 | 2 |
| **합계** | **93** | **39** | **132** | **18**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비합3002 종회의원 정수 배정. 2024. 11. 14. 확정)

**2. 종회의원 선출 일정**

| 절 차 | 일 정 |
|---|---|
| 1) 교구선거위원회 구성 | 2024. 12. 6.(금)~2024. 12. 12.(목) |
| 2) 종회의원 입후보 신고 | 2024. 12. 13.(금)~<br>2024 12. 19.(목) 오후 6:00 |
| 3) 종회의원 전형 | 2024. 12. 20.(금)~<br>2024. 12. 21.(토) |
|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전형 결과보고 및 관계서류 발송 | 2024. 12. 22.(일) |
| 5) 중앙선거관리위원희의 적부 판정 일시 | 2024. 12. 28.(토) |
| 6)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 확정 공고 | 2024. 12. 29.(일) |
| 7) 첫 종회의 소집 | 일시 : 2025. 1. 7.(화)<br>장소 : 망월사, 경주시 포석로 682-17 |

2024년 11월 27일

**대한불교원효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진광(김종호)** 임시종정 **원호(이종윤)** 임시총무원장 **일륜(김두환)**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 주 문 : 043) 297-2514
●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한일 여성, '불교'로 20년 교류하다

## 한일불교교류협 여성부, 11월 12~14일 삼광사 등 방문

**양국 불자여성 대표한 화합의 장**
**한국불교문화 탐방 및 체험 진행**
**백명숙 여성부 회장 감사패 받아**
**양국 우정과 소통 이어가길 기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6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가 양국 여성 불자들을 대표해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16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이하 교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대회는 양국 불자 여성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각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화합의 장으로 열렸다.

환영 만찬으로 시작을 알린 교류대회는 은해사 및 정토마을 자재병원을 방문해 한국 불교 문화를 탐방했다. 마지막 날에는 천태종 삼광사를 방문해 참배하고 직접 한국 전통음식을 만들며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광사를 방문한 회원들은 오이소박이와 알타리무 김치를 직접 만들며 처음 만들어본 한국 음식에 새로운 문화 체험이라며 반색했다.

타카노 후세키 회장은 "잘하지는 못해도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스즈키 리에코 부회장은 "너무 재미있다. 김치를 사서 먹은 적은 있지만 오늘 만들어본 음식은 처음 해본 색다른 경험"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교류대회 시작에 앞서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는 환영 만찬을 열고 일본에서 온 협의회 회원들을 환영했다.

환영 만찬에는 이사장 상진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명안 스님(여래종 총무원장), 사무처장 탄웅 스님, 상임이사 고봉 스님, 지만 스님, 진관 스님, 이사 호명 스님을 비롯해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원 와타나베 겐코 스님 등 승가 내빈이 동참했다. 백명숙 여성부 회장, 박동희 부회장을 비롯해 타카노 후세키 회장 등 여성부 회원들도 참석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이날 창단부터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성부를 이끌어 온 백명숙 회장과 박동희 부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백명숙 회장은 "앞으로 우리 우정이 20년이 아닌 40년을 더 이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타카노 후세키 회장은 "일본의 사찰은 도심에 있어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가 없는데, 한국의 사찰은 가을의 향기가 물씬 전해져 계속 머물고 싶다"며 "함께 해준 우정에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사장 상진 스님은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가 내년에 20주년을 맞는다. 불교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온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양국이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 향기로운문화동행, 차향 속 평화 전하다

〈茶〉

**제11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11월 17일, 부산 정관 중앙공원**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 11월 17일 부산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1회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 스님)이 11월 17일 부산 기장군 정관 중앙공원 일원에서 제11회 부산기장국제차(茶)문화축제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 범어사 효문 스님을 비롯해 정종복 기장군수 및 국내외 다회 대표 차인들이 참여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는 지난 10년간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며 든든한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 축제가 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 울창한 숲을 이루며 더 큰 그늘을 드리우기를 기대한다"며 치사를 전했다.

보혜 스님은 "10회의 축제를 거쳐 오면서 많은 인연의 도움이 있었고 그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진심에 담아 차 한잔 올리고 싶은 날"이라며 "세월에 익은 차가 깊은 맛이 나듯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네 삶도 향기롭게 짙어가면 좋겠다"며 대회사를 전했다.

인도 아유타국에서 차를 전래한 것으로 알려진 허황옥을 기리는 허황후헌다례에서 헌향, 헌화, 헌다에 이어 헌무가 있었다. 인도무용가 스레스타 맨덜(Shrestha Mandal)이 담당한 헌무에 많은 관객들은 어린 연출가의 공연에 즐거워하며 큰 박수를 보냈다.

이어진 문화상 시상식에는 허황옥차인대상에 전정현 (사)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이, 김수로문화대상에 이상균 차와문화 편집장이, 차성문학대상에 김문홍 부산공연사연구소장이 수상했다.

허황옥차인대상을 수상한 전정현 (사)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은 "2019년 김해에서 '허황후 궁중다례'를 2천여년 만에 수로왕릉에서 재현하고 가야의 숨결과 차문화를 뿌리내리고자 한 노력들이 이 상을 수상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부산시장 표창은 배귀점 (사)한국다도협회 이사와 김진옥 (사)향기로운문화동행 이사가 수상하고 부산시교육감 감사장은 박진옥 한국다도협회 효명지부장)과 허두이 우리문화맥협동조합 이사장이 수상했다. 부산시의회의장 감사장은 김영희 신라차문화원 부회장과 김나경 (사)한국다도협회 경남동부지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 (사)부산정각원, 나눔의 연말 온기 전해

**11월 22일, 사상 르네시떼 광장**



사단법인 부산정각원(이사장 향공 스님)이 연말을 맞아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창립 2주년을 기념했다.

(사)부산정각원은 11월 20일 부산 사상구 르네시떼 광장에서 '창립 2주년 및 제13회 연말 사랑의 나눔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부산정각원은 김장김치와 장학금, 라면, 육개장 중식 등 풍성한 나눔으로 지역민에게 자비를 전했다. 김장김치는 300박스(1박스 10kg), 라면 300박스 등이며, 경품 추첨을 통해 TV,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이불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주지 향공 스님을 비롯해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전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장 성문 스님,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향공 스님은 "부산정각원은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자비와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범어사·동국대 WISE, 위탁교육 업무협약

**11월 20일, 경내 주지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11월 20일 경내 주지실에서 '범어사·동국대 WISE 위탁교육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앞으로 양 기관은 상호 교류를 증진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동국대 대학원(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은 범어사에서 추천한 종사자(산하 법인 기관 포함)들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국대 대학원은 범어사에서 추천한 학생에 한하여 첫 학기 입학에서 60%, 다음 학기부터 50%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범어사 종무소로 연락해 대학원 진학 의사를 밝힌 후, 범어사의 추천을 받아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라오스에 한국어학과 강의동 기증

**11월 18일, 교육 불사 실천**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은 11월 18일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위치한 수파누봉대에서 '한국어학과 강의동 신축 건물 기증식'을 진행했다.〈사진〉

(사)한나래문화재단은 불교국가인 라오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양성에 앞장서고자 한국어학과 전용 강의실 건립 불사를 추진했다.

기증식에서는 수파누봉대 한국어학과 재학생들의 라오스 전통공연 등이 펼쳐졌으며 '제3회 한국어! 도전 골든벨'이 진행됐다. 기증식에는 이사장 심산 스님을 비롯해 루앙프라방 교육청장, 수파누봉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조계종 홍법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부산 모금회 사랑의 열매, 은산해운항공, 삼영엠티, 이스턴마린 주식회사가 후원했으며, 홍법사 법화경 전편 독송회, 삼보회, 108산사순례회가 불사 기금 모연과 불사 원만 성취를 위해 기도 중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보살계 통해 수행하는 불자 되길”

**‘백양사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
**11월 16일 대웅전 앞 금강계단서**
**대중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기 2568년 백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에서 2000여 사부대중은 청정한 불자로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백양사가 2000여 불자에게 대승불교 수행자가 지녀야할 보살계를 전했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1월 16일 경내 대웅전 앞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8년 백양사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대법회(이하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계아사리 백양사 율주 혜권 스님, 갈마아사리 성오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교수 아사리 백양사 율원장 법장 스님 등 증명법사를 비롯해 2000여 명의 백양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12년 만에 봉행된 수계법회에는 1부 수계의식과 2부 백양사 본·말사 어울림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증명법사로 나선 스님들은 2000여 사부대중에 대승불교 수행자가 지녀야 할 10중 대계와 48경계 등 보살계를 전했다.

갈마아사리 성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백양사의 율맥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한국불교의 전통”이라며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과 지혜가 나올 수 없다. 오늘 참여한 신도분들은 보살계를 통해 수행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수계 동참제자들은 참회진언을 외우며, 연비의식을 통해 청정한 불자로 나아가기를 서원했다.

수계법회에 이어 백양사 본·말사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이 열렸다. 어울림한마당에는 각 사찰을 대표해 12개 팀이 노래자랑에 참여했다. 수안 스님, 통기타 가수 박강수, 트롯신동 김성록, 국악팀 금강대중 등이 초청 가수로 무대에 올라 흥을 더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름다운 백암산 단풍과 교구 신도들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만공 스님 法音 새기고 공부해야”

**수덕사, 정혜사 · 능인선원서**
**‘만공 스님 78주기 다례재’**
**설정 스님 등 사부대중 동참해**


만공 스님의 사상 ‘세계일화’가 새겨진 만공탑을 향해 사부대중이 예를 올리고 있다.

덕숭총림 수덕사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선승(禪僧)이었던 만공 스님의 열반 78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11월 20일 덕숭산 산내 정혜사와 능인선원 일원에서 ‘만공 스님 열반 78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전 총무원장 설정 스님,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동국대 학술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화계사 회주 성광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만공 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제자로 현대 한국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스님이자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다. 조선총독부의 ‘대처승’ 불교정책을 반대하며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참 대중은 다례재에 앞서 만공 스님의 진영을 봉안한 금선대와 만공 스님을 상징하는 사상인 ‘세계일화(세계는 한 송이의 꽃)’가 새겨진 만공탑을 참배했다.

설정 스님은 “스님의 행적은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극명하게 일러준다”며 “만공 스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법음을 새기고 공부하는 것이 만공 스님을 가장 잘 모시는 길이다”라며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육군장병 1100명, 부처님 제자로 거듭나

**11월 16일 논산 호국연무사서**
**서초구 사암聯 회장 법안 스님**
**“오계를 삶의 지표로 삼을 것”**


암연합회 스님과 호국연무사 주지 진오 스님을 비롯한 군승법사들이 자리했다. 연비의식은 전북 익산시 군포교지원팀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육군장병 1100명이 법안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고 참된 불자로 거듭났다.

서울서초구사암연합회는 11월 16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진오 스님)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육군장병 11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법회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청성, 청법가, 청사와 개도, 법문, 참회 및 연비의식, 계첩 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법석에 오른 법안 스님은 대표 훈련병들에게 연비의식을 행하고 수계증을 전달했다. 이어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오계를 받아 생활의 신조로 삼으라”며 “여러분이 미래의 부처님이라 믿고 부처님의 명호를 독송하며 삶의 지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계법회에는 서초구사

## 울산불교종단聯, 전통음식문화한마당

**11월 17일, 울산 신흥사서**
**전통음식 전시 및 소개 등**



울산불교종단연합회와 울산 신흥사가 제13회 울산전통음식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사진〉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혜원 스님)와 울산 신흥사(주지 인경 스님)는 11월 17일 신흥사 신성루에서 ‘한 입에 담긴 계절, 한 상에 펼쳐진 이야기’를 주제로 울산 전통음식 한마당을 열었다.

신흥사 대웅전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혜원 스님은 “전통음식 문화 한마당은 전통음식 문화의 가치와 멋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행사에서 선보인 음식을 양약으로 삼아 모든 사부대중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흥사 주지 인경 스님은 “신흥사에서는 봄과 가을, 두 번에 걸쳐 불교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며 “울산지역민이 다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내 신성루에서는 사찰음식 장인 지견 스님의 전통음식 전시회가 열렸다. 사찰식 장아찌, 죽, 사찰초밥과 주먹밥 등 사찰의 일상식과 스님들의 삭발식에 먹는 특별식들이 선보여졌다. 궁중떡볶이, 국화빵 등 우리 전통음식도 차려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익산 정각사, 요사채 ‘능인당’ 낙성식

**11월 17일, 경내 특설무대서**
**“수행 · 복지도량으로 성장”**



익산 정각사가 요사채 조성을 기념하는 낙성식과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사진〉

익산 정각사(주지 일행 스님)는 11월 17일, 경내 극락전 앞 특설무대에서 능인당 낙성식과 ‘익산시민을 위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능인당 낙성식 기념법회는 조계종 어산종장 덕산 스님(금선암 주지)과 제천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의 권공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상량기 낭독 △치사 △축사 △현판제막식 △축가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정각사 주지 일행 스님은 “능인당 낙성식을 계기로 정각사가 익산 서부지역 중심 사찰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불사에 많은 도움을 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수행과 복지를 함께 실천하는 도량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낙성식을 봉행한 정각사 능인당은 약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평 30평의 ‘ㄱ’자 구조로 주심포양식의 맞배지붕 형식으로 조성됐다. 능인당의 현판은 제천 대각사 주지 백운 스님이 썼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백미 2000kg 나눔

**11월 18일 광주 서구청서**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이 자비의 쌀 2000kg을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지원장 혜월 스님)은 11월 18일 광주 서구청(청장 김이강)을 방문, 600만원 상당의 백미 2000kg을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혜월 스님, 최성휴 고문, 문원진 신도회장, 김종금 여자회장, 전재성 남자부회장, 김이강 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문원진 신도회장은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금을 마련한다”며 “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강 청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들에게 신도들의 정성이 담긴 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광주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000kg의 자비의 쌀을 서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전달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휘정 스님, 아산불교사암聯 9대 회장 취임

**아산불자신도회 결성 추진**




아산시 불교를 이끄는 아산불교사암연합회장에 봉수사 한주 휘정 스님이 취임했다.

아산시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16일 아산 봉수사 불사리탑 앞 특설무대에서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휘정 스님은 취임사에서 “마음 바탕은 원래 하나니 모두 그곳에서 출발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펼쳐 나갈지 함께 연구하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아산 불자들이 참여하는 ‘아산 통합 불자회’ 결성을 천명했다.

전임 회장 송운 스님은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정진했다. 25년간 회장을 맡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진주 경상국립대, 新 불교동아리방 개원

**“서원 이루는 도량되길”**



진주 경상국립대 불교동아리 연화(회장 천성하)가 11월 18일 새로운 불교동아리방을 개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는 창원 우곡사 석산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청련암 원명 스님, 약사정사 진여 스님, 용화사 운선 스님, 송덕사 덕원 스님, 김용진 지도교수, 불교동아리 연화 임원진·회원들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담산 스님은 “동아리 초대회장 배설화 법우부터 현 회장 천성하 법우까지, 모든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모두가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동원사, 지역 어르신 팔순 잔치 열다

**전통죽, 선물 전달하며 격려**



무등산 동원사가 지역 어르신을 격려하는 ‘팔순 잔치’를 개최했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 스님)는 11월 19일 광주 대인시장을 방문, 상인들에게 손수 만든 호박죽 350그릇을 선물했다.〈사진〉 동원사는 자비신행회(상임이사 김삼옥)와 함께 매월 1회씩 대인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죽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지장 스님은 “가을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겨울이 온 듯하다”며 “좁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호박죽으로 늘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진안 쌍봉사, 지역 어르신에 김장김치 나눔

**지역 어르신 100가구에**



자비실천 도량 전북 진안 쌍봉사가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사진〉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1월 16일 경내 앞마당에서 쌍봉사신도회(회장 장미선), 쌍봉사 섬김봉사단·반찬봉사단 자원봉사자들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1500kg가량의 백김치를 만들고 10kg 용량 김치통에 나눠 담아 취약계층 100여 가구와 경로당, 장애인단체 등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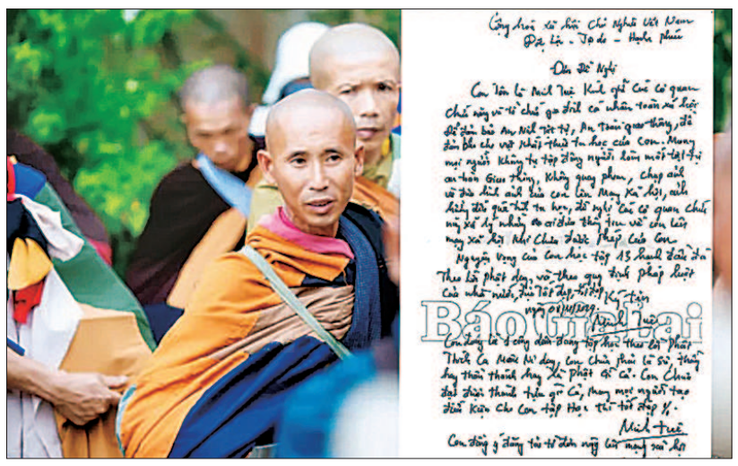
보경 스님은 “지역 어르신들이 든든하고 따듯한 겨울을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베트남 '맨발의 순례자'는 왜 호소문 냈나

**본인 사진 · 영상 게시 중단 호소**
**당국에 무단 게재 처벌 요청도**
**누리꾼 "강요로 인한 작성 의심"**

박정현 객원기자



'맨발의 순례자' 레 안 투의 자필 호소문 사진. 사진출처=GIA LAI 신문

'맨발의 순례자'로 유명한 레 안 투(Le Anh Tu)가 발표한 호소문에 자신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 13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투는 최근 베트남 중부 잘라이(Gia Lai) 지역 매체를 통해 틱 민 튜(Thích Minh Tuệ)라는 법명으로 "나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거나 사진과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게재하지 말아 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투는 "안전한 교통과 질서를 보장하고, 나의 수행과 탁발 생활을 방해하지 않길 바란다"며 "나는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서 내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불교를 수행하고 있을 뿐, 스님이나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국을 향해 "내 사진을 허락 없이 SNS에 게시한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인 11월 14일(현지시간) 오전 베트남 국영언론은 일제히 해당 청원서의 내용을 보도했고, 많은 누리꾼들은 "정당한 요청" "투를 방해하지 말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과 일부 누리꾼들은 호소문이 당국에 의해 작성되거나 강요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투의 과거 필체와 호소문의 필체를 비교하며 투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청원서에서 투가 법명으로 세 번 서명을 남긴 점과 '처벌' 등의 단어를 사용한 점에 대해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BBC는 "베트남 국영언론은 보통 댓글을 검열해 편집자들이 원하는 댓글만 노출시킨다"며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투가 직접 청원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저널리스트 하 뚱 롱(Hà Tùng Long)은 자신의 SNS에 "투가 왜 호소문에 법명으로 세 번이나 서명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며 "투는 과거에 문서 작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그가 청원서를 작성하는 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법명은 법적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을 지닐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그는 "그가 정말 호소문을 작성한 것이라면 그의 평소 수행 정신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다"며 "분노를 없애고 욕망을 버리는 수행을 선언했던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는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삭발한 머리, 수선한 가사 3벌, 오래된 탁발 그릇만을 들고 베트남 전역을 순례했다. 몇몇 유튜버들이 그가 수행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사람들은 각종 부패로 얼룩진 베트남 고위 승려들과 그를 비교하며 그의 소박하고 겸손한 모습에 열광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가 비출가자임에도 출가자 행세를 한다는 점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로 인해 안전 문제 및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를 구금한 바 있다.

# 泰 '불두 키링' 지적에 "과민반응" 역지적

**국가불교국 부국장 SNS서 시작**
**누리꾼 "불교계 문제 해결부터"**



논란의 중심에 선 불두 인형 키링. 사진출처=키링 제작 업체 공식 SNS

불교국가 태국에서 불두 형태의 캐릭터 키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1월 12일, 태국 뉴스 전문 매체인 'X 봄버 타이'는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1일 태국 분 차트 국가불교국 부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굿럭 아미토포(Amitofo) 키링'을 소개하며 비판했다. 색색의 불두 모양 인형이 달린 키링은 행운과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준다는 홍보문구로 판매되고 있으며 개당 549바트(약 2만2천원)에 판매중이다.

분 차트 부국장은 "불교의 가르침에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부처님의 머리를 상징하는 상품을 단순한 액세서리나 열쇠고리로 취급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합당하지 않고 종교적으로도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해 국가불교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이해를 요구할 뿐이지만, 가능한 빠른 대응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으나 태국 불교계의 중요 사안들을 담당하는 국가불교국의 부국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 게시글은 논란의 장이 됐다.

젊은 태국 누리꾼들은 국가불교국이 과잉반응을 한다고 거세게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다른 불교국가에서도 불보살을 이용한 상품들이 많은데 왜 태국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불두 키링은 그 홍보문구처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거나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최근 태국불교계의 다양한 스캔들들을 보면 화가 난다"라며 "국가불교국이라면 작은 캐릭터 상품이 아닌 불교계의 문제를 지적하라"며 역으로 비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 日 불상조각가, 노토지방 지진피해 불상 복원 나서

**부부 조각가 문화재 구조사업**
**사찰 5곳 불상 복원, 활동 지속**



파손된 불상을 수리하고 있는 요시다 부부.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지난 1월 1일 100년 만에 일본 내륙에서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지진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보고됐다. 사찰의 붕괴나 성보문화재의 파손 등도 보고된 한편, 이시카와현 출신 불상조각가 부부가 고향을 돕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11월 16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과 'N TV 뉴스' 등은 부부의 활동을 특별보도했다.

일본 남부 고치현에서 불상 조성 및 수리 전문가로 활동 중인 요시다 야스마사와 아내 요시다 사오리 부부는 지난 12일부터 노토반도 산속 깊은 곳의 사찰들을 돌며 지진에 훼손된 불상들의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일본 문화청의 문화재 구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작업은 부부의 고향을 위한 마음에서 시작됐다. 요시다 씨는 "내가 배우고 활용하는 기술이 고향에 도움이 되길 바랬다"며 직접 자원한 사실을 밝혔다.

부부가 하는 작업은 완전한 수리가 아닌 훼손이 심각한 부분의 수리와 더 이상의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응급조치다. 보고에 따르면 불상의 광배나 지물, 팔다리와 같은 취약한 부위 대부분이 파손됐다.

지역 사찰인 묘센지는 법당에 있던 부동명왕과 지장보살상의 응급수리를 하게 됐다. 묘센지 주지 카와모토 유케이 스님은 "시골 절이라 불상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를 하는 등 불사를 진행할 기회가 많이 없었다"며 "불상조각 전문가가 직접 찾아와 파손된 불상을 수리해주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요시다 부부가 담당한 또 다른 사찰은 지진으로 인해 법당이 무너지고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건물을 덮쳤다. 이로 인해 본존불인 대일여래상의 광배가 파손됐고 스님들이 피난을 떠나 사찰의 재건도 요원해졌다. 이에 불자들은 불상이라도 수리하자는 원력을 모아 부부에게 불상 수리를 요청했다.

야스마사 씨는 "부처님을 조금이나마 원래 모습에 가깝게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사찰과 불자들의 고뇌가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또한 부처님이 다시 돌아왔다고 기뻐해준다면 큰 보람이 된다"고 작업에 임하는 마음을 전했다.

요시다 부부는 11월 16일까지 노토 지역 내륙의 사찰 5곳 불상을 응급 수리했다. 부부는 앞으로도 꾸준히 피해를 입은 타 사찰에 수리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 호주 지역민 반대 극복…사찰 건립 '승인'

**'소음 금지' 등 19개 조건부로**



호주 퀴나나 지역 시의회가 마하메브나와 불교 사찰 건립을 최종 승인했다. 사진은 수도원 소속 스님들 모습. 사진출처=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지역민 반대에 부딪혔던 호주 퀴나나 지역의 스리랑카 불교 사찰 건립이 시의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 마침내 착공될 예정이다.

더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The West Australian)는 11월 20일(현지시간) "퀴나나시 캐주어리나(Casuarina)에 건립 예정인 마하메브나와 불교 사찰(Mahamevnawa Buddhist Monastery of Perth)의 개발 신청이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찰 건립에는 19개 조건이 부과됐다. 당초 사찰의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찰 건립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사고 위험, 농촌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해왔다.

한 시민은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데 사찰 입구가 내 집과 가까워져 평온한 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며 "지난 5년 동안 도로 상태가 나빠졌는데 사찰이 들어서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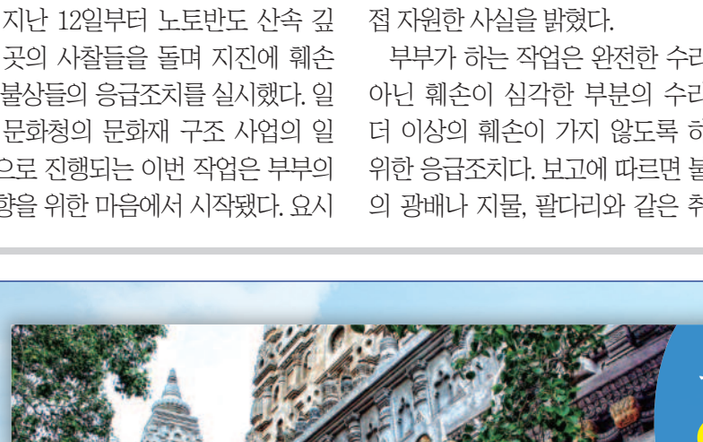
이에 시의회는 △찬불가, 종소리 같은 소음 발생 금지 △야외 활동과 확성기 사용 금지 △어린이 프로그램은 실내 제한 △소규모, 실내 행사 등 조건을 걸었다.

시 관계자는 "사찰 책임자들이 시의 권고안을 반드시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승인으로 사찰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종교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의 발자취를 더 가까이 마주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 일 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280~330만원


천불천탑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완벽 순례 5박 6일
■ 일 정 인천–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양곤–인천

미얀마 바간


대만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천혜의 자연과 찬란한 문화유산,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 스타 스님 앞에 나타난 아이들은 누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시사회에 참석한 진우 스님과 배우 이승기.

**주지스님 주인공 영화 〈대가족〉**
**배우 이승기, 직접 삭발 화제도**
**조계종, 영화제작 초기부터 도움**
**진우 스님 "진정한 가족 알려줘"**



영화 〈대가족〉이 12월 11일 전국 동시 개봉한다.

만두 맛집 '평만옥' 사장 함무옥(배우 김윤석)은 대를 이을 줄 알았던 외아들 함문석(배우 이승기)이 스님이 돼 출가한 이후 근심이 깊다. 그러던 어느 날, 끊겨버릴 가문 걱정으로 아들이 출가한 이후부터 웃음을 잃은 그에게 세상 본 적 없던 귀여운 아이들이 찾아왔다. 문석이 자신의 아빠라며 방문한 손주들을 보며 무옥은 난생 처음 맛보는 행복을 느끼게 되고, 문석은 스님이 되기 이전의 과거를 되짚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간략한 스토리만으로도 황당하고 귀여운 전개를 예고하는 영화 〈대가족〉은 스님에게 찾아온 의문의 핏줄과 대가 끊기게 생긴 함씨 가문, 전대미문의 캐릭터 함무옥까지 모든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들어가면서 박수치며 즐길 수 있는 순도 100% 웃음을 제공하는 가족 공감 코미디 영화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최초의 작은 사회 '가족'을 소재로 양우석 감독만의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간다.

스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 〈대가족〉 특별시사회가 11월 19일 서울 롯데타워 롯데시네마에서 열렸다. 제작 준비 당시부터 조계종이 도움을 준 것을 인연으로 배급사가 오직 불교계만을 위해 특별 시사회를 준비한 것.

〈대가족〉에서 주인공 배우 이승기가 연기한 무애 스님은 백양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는 스타 스님이다. 재미있는 법문과 친근한 상담, 잘생긴 얼굴, 게다가 의대생 출신이라는 백그라운드까지 단연 돋보인다. 의사가 되자마자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스님이 됐고 아버지와의 연도 끊어버린다. 잘나가는 노포 맛집도, 고스펙의 의사 면허증도 반납했지만 불교계에서는 높은 인기를 자랑하는 슈퍼스타 주지스님으로 촉망받는다. 실제 〈대가족〉은 무애 스님이 큰 법당을 가득 채운 수많은 사부대중 앞에서 〈부모은중경〉을 주제로 법문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이승기 배우는 이번 작품을 위해 머리를 삭발, 영화 속에서 직접 머리를 미는 장면을 연출하는 열정을 보여줬다. 〈대가족〉이라는 작품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이승기 배우는 삭발 과정에서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임했고 역할 몰입을 위해 장시간 사찰을 찾아 스님들의 생활과 습의 등에 대한 교육을 받으며 '중물'을 들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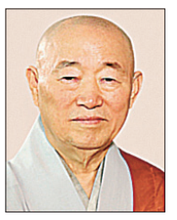
시사회에서 만난 이승기 배우는 "감히 백양사 주지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스님들로부터 불교 정신을 배우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시사회 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던 영화"라며 감동을 전했다.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영화 〈대가족〉은 12월 11일 전국 동시 개봉한다.

# BTN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한암상 수상

**성운학술상 대상에 자성 스님**
**12월 17일, 시상식 및 학술대회**


성우 스님


자성 스님

제3회 한암상 수상자로 조계종 전 전계대화상이자 BTN불교TV 회장인 성우 스님이 선정됐다. 제7회 성운학술상 대상은 동국대 박사 과정을 수료한 자성 스님에게 돌아갔다.

(사)한국불교학회는 11월 20일 월정사불교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상자 발표와 함께 시상식 및 학술대회 일정을 발표했다.

성우 스님은 1963년 파계사에서 고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총림 율원을 졸업했다. 이후 1996년에는 조계종 단위사찰 최초로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파계사 영산율원을 설립하며 현대 한국불교의 계율 전통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불교학회장 자현 스님은 "성우 스님은 계율과 교육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하며 율사로서 모범적인 발자취를 남겼다"며 "이번 수상은 불교계뿐만 아니라 학문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성운학술상 대상 수상자인 자성 스님은 '기도가피에 대한 동곡 일타의 관점'을 통해 일타 스님의 기도사상을 학문적으로 해석하며 불교 신앙과 학문 간의 연계를 조명했다. 논문은 기도가 신앙적 실천뿐 아니라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도 중요함을 입증하며 현대 불교의 기도문화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금강경 기도의 의미 탐색 연구'를 발표한 손강숙 중앙승가대 부교수가 수상했다. 장려상은 황금연 동국대 연구원, 문상련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염중섭 중앙승가대 부교수, 최영임 중앙승가대 석사과정생, 김나래 엄마뱃속 태교명상연구소장, 이상호 서강대 종교연구소 연구원이 각각 선정됐다.

성운학술상 대상에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며 우수상에는 500만 원, 장려상에는 각 100만 원씩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며, 신앙과 가피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정현선 기자

# 故 김성철 선생 1주기, '체계 불학' 의미 재조명

**11월 15일 추모 세미나**

(사)한국불교학회는 11월 15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도남 김성철의 학문 세계와 체계 불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김성철 선생의 업적을 되새겼다.

자현 스님은 개회사에서 "선생님의 삶이 치열했던 만큼 그의 업적도 크다"고 추모했으며, 성운 스님은 추모사에서 고인의 진리 탐구와 수행자로서의 자세를 기리며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동국대 철우 스님과 이평래, 백도수 전 한국불교학회장이 애도사를 통해 고인의 가르침과 유산을 되새겼다.

제자들인 단원 스님, 유지원, 박종부 씨가 낭독한 '교수님께 드리는 편지'는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윤종갑 동아대 교수, 정상교 금강대 교수, 김영미 능인대 교수는 학술발표에서 김성철 선생의 학문적 성취와 연구를 조명하며 그 의의를 평가했다. 정현선 기자

# 예천 보문사 신중도, 도난 35년 만에 본래 자리로

**조계종 협의로 신중도 반환 확정**
**국가유산청 조사로 소장처 확인**
**도난품 인정, 조건 없는 반환**
**ICOM 윤리와 종교적 가치 존중**


경북 예천군 보문사에 봉안돼 있다가 도난당한 뒤 35년 만에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신중도.

예천 보문사의 신중도가 도난된 지 35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이로써 1989년 도난당했던 세 점의 불화가 모두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조계종 총무원 방문단(대표 문화국장 신해 스님, 직지성보박물관장 진웅 스님)은 11월 19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시카고대 스마트미술관(관장 반야 말로이)을 방문해 협의를 통해 신중도 반환을 확정했다.

신중도는 1989년 6월 5일 예천 보문사 극락보전에 봉안돼 있던 아미타불회도, 삼장보살도와 함께 도난당했다. 이후 아미타불회도와 삼장보살도는 2014년 환수돼 보문사에 봉안됐지만 신중도는 행방이 묘연했다. 2023년 6월,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미국 스마트미술관에 신중도가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환수의 물꼬를 텄다.

조계종은 같은 해 8월 스마트미술관에 신중도가 도난 성보임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신중도가 도난 성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봉했다. 스마트미술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 강령에 따라 신중도 반환을 자발적으로 결정했다.

신중도는 1767년 혜잠 스님이 그린 불화로, 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 좌우에 배치한 독창적인 구도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 같은 해 같은 화승이 그린 삼장보살도는 환수 후 국가지정유산 보물로 지정됐으며, 조계종은 신중도 역시 이에 준하는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반환 결정은 ICOM의 박물관 윤리 강령에 근거한 조건 없는 반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스마트미술관은 도난의 역사와 종교적 가치를 인지하고 조건 없이 반환을 결정했으며, 조계종은 스마트미술관 측의 선의와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번 사례가 국제 사회에서 도난 문화재 반환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신중도의 도난의 역사와 종교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반환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해준 시카고대와 스마트미술관 측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정현선 기자

# '사찰 불단' 문화유산적 가치 조명하다

**불단 연구 성과 공유 '학술대회'**
**전국 사찰 불단 조사 5년 결실**

사찰 불단을 독립적인 문화유산으로 재조명하고 디지털 기록화와 보존 환경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재)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은 1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찰 불단 조사·연구의 성과와 역사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단은 불상을 봉안하고 불전을 장엄하는 단으로, 불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예경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불단은 사찰 건축물의 부속물로 간주되며 독립적인 문화유산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에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전국 55개 사찰에서 불단 72점, 장엄구 82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개 사찰에서 불단 내부와 외부에 남겨진 묵서, 제작자와 후원자의 이름, 조성 시기를 언급한 14건의 명문 자료가 발굴됐다. 대구 동화사 대웅전 불단의 경우, 내부 구조물을 청소하며 발견된 묵서를 통해 1725년에 건물, 불상, 불단이 동시에 조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불단이 단순한 건축 부속물이 아니라 당시 신앙과 불교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김대운 젠헤리티지 문화재병리연구소 대표는 불단이 화재, 습기, 해충 등 손상 요인에 취약하다며 "목재 특성을 정밀히 분석하고 손상 패턴을 예측해 적합한 보존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문화유산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닫집(천개)에 대한 정밀 조사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현선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20~11/26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위빳사나수행 28일 | 자나까비왐사/케마 | 한국빨알리성전협회 | 6 |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초기불전001) | 각묵옮김 | 초기불전연구원 |
| 2 | 만해 한용운 도올이 부른다(2) | 김용옥 | 통나무 | 7 | 철학으로서의 불교(대원불교학술총서09) | 마크 시더리츠 | 운주사 |
| 3 | 만해 한용운 도올이 부른다(1) | 김용옥 | 통나무 | 8 |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 사라스와띠 | 한국요가출판사 |
| 4 | 요가수행디피카(아행가요가시리즈5)완전함 내면의 평화 해탈의 길 | 아행가,존J.에반스, 더글라스 에이브람스 | 선요가 | 9 | 불멸(1) 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 이각 지음 | 지혜의 눈 |
| 5 | 불멸(3) 아무래도 아무렇지 않은 | 이각 | 지혜의눈 | 10 | 불소행찬(상) 부처님의 생애 | 마명/나가성타 | 두배의 느낌 |

# 자승 대종사 金言, 시인이 풀어 엮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
자승 스님, 신동호 지음
자음과모음/ 2만2000원




**2009~2017년 총무원장 재직 시절 행사, 강연 등서 나눈 이야기 모아**
**신동호 시인, 아포리즘을 써 연결**
**지남 삼을 자승 대종사 어록 '감동'**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우리 불자들에게 보시란 육바라밀의 제1수행법이자 무량공덕의 창고로 가는 열쇠입니다. 나의 재산과 시간을 대가 없이 남에게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다면 어찌 수행이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속 아집이 녹아내리고 복덕이 구족하여 성불의 인연이 맺어지게 됩니다.**

–82쪽, 자승 스님, '나는 세상에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 중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평생을 걸쳐 노력했던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어록 중 일부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은 '자승스님 말하고 신동호 새겨 적다'라는 지은이 표기에서 보이듯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일하던 시절 행사, 강연 등에서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신동호 시인이 그에 연결되는 아포리즘을 쓴 에세이집이다. 자승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새길 만한 내용을 가려 뽑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에는 일반 대중이 모르는, 불자들도 잊고 있던 자승 대종사의 따듯한 모습, 사회를 향한 실천행에 관한 글들이 가득하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종교와 사회에 외치는 변혁의 소리, 우리의 모범이 될 만한 스님들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며 불자가 아니어도 '좋은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생활 속에서 하루 한 구절을 통해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잊어버린 가치를 되찾고, 한국불교를 자승 대종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는**

1954년 춘천에서 태어나 춘천댐 건설로 화천으로 이주했다. 불법과 승가의 인연을 일생의 복으로 삼아 봉정암에서 기도정진하며 겨울 설악처럼 묵묵함을 담고, 통도사 · 동화사 · 봉암사 제방선원에서 불립문자에 다가갔다. 용인 대덕사를 창건하고, 영월암과 수원포교당에서 대중포교에 매진했다. 2009년 제33대, 2013년 제34대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으며 시대와 함께하는 불교, 불교 중흥을 향한 비바람에 맞섰다. 총무원장 퇴임 후에는 백담사 무문관에서 정진했으며 2019년 '상월선원 천막결사', 2020년 '국난극복 자비순례'로 세상 속에서 함께 울고 웃는 불교를 위해 앞서 행동했다.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 2022년 '평화방생순례'는 길 위에서의 참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행원이었다. 2023년 인도순례 "생명존중, 붓다의 길을 걷다"는 뭇 생명의 편안함, 평화를 발원한 마지막 발걸음이었다. 2023년 11월 29일 법납 51세, 세수 70세 일기로 열반에 들었다.

책은 총 5장으로 이뤄져 있다. 1장 '우리 시대의 깨달음'에서는 불자가 지녀야 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깨닫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작을 연다. 2장 '우리 시대의 수행길'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져 온 불교예술이 미치는 긍정적인 점을 주로 다뤘다.

3장 '우리 시대의 고행길'은 계층·세대 등의 갈등에 관한 이야기와 쌍용차 노사분규, 세월호 사건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어록을 담았다. 4장 '우리 시대의 해탈길'에서는 불교계 내의 사회 참여를 소개하며, 수고한 이들을 다독인다.

5장 '우리 시대의 스승들'에서는 스님들에 관해 소개한다. 법정 스님, 성철 스님, 만해 스님 등 독자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스님들과 함께 불교계에 큰 족적을 남긴 스님들의 삶을 조망하며, 그들이 삶을 통해 들려주려 했던 말에 공명한다.

신동호 시인은 자승 스님이 수행에 대한 아쉬움만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회고한다. 불교 개혁과 사회 화합을 위해 자주 세간에 서 계셨던 스님이었지만 늘 마음은 수행처에 가 계셨다고, 시대에 맞는 개혁을 위해 모두를 위로했고, 온갖 오해와 억측까지 그저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셨다고 한다.

개혁의 순수한 의도를 지키기 위해, 사회 화합을 위해서는 인지상정의 마음과 역지사지의 태도로 편견을 버리고자 노력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그저 말없이 버텨나가셨다고 한다.

출판사 측은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은 대종사가 홀로 가져가신 오해와 억측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획됐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자승 대종사가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 얼마나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는지, 남겨놓은 말씀이 얼마나 주옥같았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이 가지는 힘은, 불교계의 쇠퇴를 맞이하는 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다방면으로 불자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자승 대종사의 진솔하고 강력한 말에 있다. 이 말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추천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힌다. "자승 스님은 평소 말씀이 적었습니다. 지극히 절제하셨습니다. 〈자승 스님의 묵묵부답〉에 실린 스님의 글과 말들은 언어적 메시지에 멈춰 있지 않고, 시대 상황 위에서 생동하는 입체적 메시지입니다."

# 오디오북으로 만나는 '전등수필'



**전등수필 1, 2권 오디오북**
월암 지음 / 담앤북스 / 각 권 1만6800원

'전등사서' 읽기 선풍을 일으킨 월암 스님의 〈전등수필〉을 저자인 월암 스님과 전문 성우의 목소리로 듣는다.

담앤북스는 이 시대의 참된 수좌로 한국불교의 선맥을 잇고 있는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의 〈전등수필〉1, 2권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했다.

〈전등수필〉은 월암 스님이 〈전등록〉과 〈선문염송〉 등 여러 '전등사서(傳燈史書, 선사들의 법어와 선문답, 전법 내력 등을 모아 놓은 책)'를 열람하며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 글귀를 엄선해 담박한 해설과 법문을 더한 책이다.

오디오북에서는 1권 108편, 2권 100편 등 총 208편의 글을 전문 성우와 월암 스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다. 성우가 본문을 읽은 후 월암 스님이 핵심 구절을 직접 낭독해, 마치 법회 현장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는 듯하다.

월암 스님은 "오늘의 출가수행자들이 여러 권의 전등사서를 모두 공부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 종지에 대한 정견을 갖추고, 재가수행자들은 불조의 수증기연 가운데 귀감이 될 만한 언구를 삶의 지침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바쁜 일상과 영상 콘텐츠의 범람으로 책 한 권 읽기 쉽지 않은 시대다. 하지만 출퇴근길 혹은 잠깐의 여유 시간에 〈전등수필〉 오디오북을 듣다보면, 죽비처럼 따끔하면서도 담박한 월암 스님의 가르침이 허기진 마음속 공양간을 가득 메워줄 것이다.

〈전등수필〉 오디오북은 11월 7일부터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네이버 오디오클립, 북큐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생시간은 1권 6시간 36분, 2권 6시간 44분. 담앤북스 유튜브 채널(@dhamenbooks_media)에서는 오디오북 일부를 미리 들어볼 수 있다. 박재완 기자

# 7살 어린이~70대 어르신의 발원들



**그대 향한 길**
불교여성개발원 엮음
권영순 그림
민족사/ 1만 3500원

불교여성개발원이 엮어낸 〈그대 향한 길〉은 일곱 살 유치원생부터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망라하여 간절한 발원문을 모았다. '세대가 함께하는 불자 생활 의례 발원문'이라는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발원문을 총망라하여 한 권의 책으로 모아 놓은 책이다.

특히 불교여성개발원 산하 불교여성연구소에서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세대가 함께하는 발원문 교실'에 참여한 여성 불자 108인들과 자녀, 손자 손녀 등 총 38명이 정성스럽게 작성한 발원문이 담겨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 책은 모두 10장으로 나뉘어 편집, 출생부터 장례, 제례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에 따른 발원문 38편을 담아 놓았다. 각 장마다 권영순 작가(여성 불자 108인)의 그림과 적절한 선시(禪詩)와 경전 구절 등을 곁들여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또한, 이기향 불교여성개발원장의 머리말처럼 7세부터 일흔이 넘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불자들이 직접 작성한 발원문을 모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색이자 가장 큰 장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 향한 길〉 발원문을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에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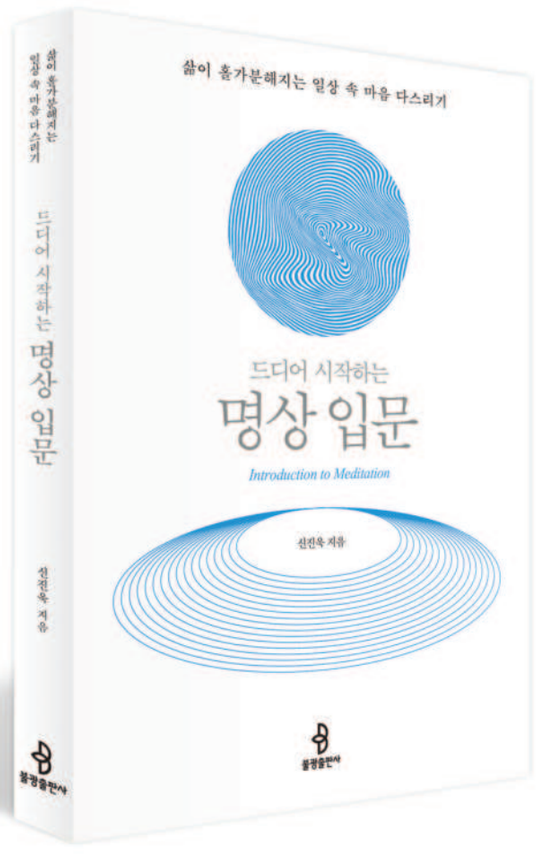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 명상!
소란한 마음에서 벗어나
풍요로운 지금을 사는 비결

*Introduction to Meditation*

이 책은 명상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방대한 자료와 정보들 속에서 수행의 입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풀어낸 책이다. 명상의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불교의 핵심을 잊지 않으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자를 친절하게 명상의 입문으로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에 한걸음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일묵 스님(제따와나선원 선원장, 『사성제』 저자)




명상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가?
명상을 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훈련
삶이라는 바다에서 우아하게 서핑하기

삶이 홀가분해지는 일상 속 마음 다스리기
드디어 시작하는 명상 입문
신진욱 지음 | 232쪽 | 18,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 왜, 어떻게 명상하고 '일상' 접목할까



서양인을 위한 불교 강의
텐진 빠모 지음 / 김윤종 옮김
불광출판사 / 2만5000원

## 티베트불교 '역사'된 비구니 텐진 빠모
## 21세기 살아가는 한국인에 전하는 메시지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텐진 빠모

매년 연말이면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여성 100인'을 선정한다. 2023년에는 전 미국 대통령 영부인 미셸 오바마를 비롯해 성별 임금 격차 연구로 202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 등이 꼽혔다. 그런데 100인 중 유일하게 종교인이 한 명 있었다. 바로 '서양인 여성 최초 티베트불교 비구니' 텐진 빠모다.

제2차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난 다이안 패리(텐진 빠모의 출가 전 이름)는 열여덟 살에 처음 불교를 접하고 스무 살이 되던 1963년 인도로 건너간다. 그곳에서 스승을 만난 그는 1964년 사미니계를 받고 텐진 빠모라는 법명을 받았다. 마침내 1973년에는 비구니계를 받으며 '서양인 여성 최초 티베트불교 비구니'라는 호칭을 얻었다.

불교국가 대부분에서 그렇듯이 비구(남성) 중심의 불교 교단에서 텐진 빠모는 '여성'과 '서양인'이라는 경계를 뛰어넘었다. 여기까지라면 그냥 '특이한 이력'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1976년 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인도 라훌의 외떨어진 작은 동굴에서 '집중 수행'에 들어간다. 집중 수행은 1988년까지 12년간 이어졌고, 마지막 3년은 아예 외출조차 삼가고 폐문 수행을 했다. 히말라야의 추위와 눈보라는 물론, 한 사람이 눕기에도 좁은 동굴에서 고독과 싸워야 했으며, 수행의 진전이 느릴 때는 낙담과 싸워야 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걸음 발을 내딛게 된다. '여성'과 '서양인'이라는 경계는 물론 '수행'의 경계까지 넘어 마침내 성취를 이뤄낸 것이다.

이후 그의 행보는 티베트불교에서 여성의 지위는 물론 서구에 불교의 씨앗을 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BBC에서의 선정 의도대로 '영향력'과 '영감' 모두를 갖췄던 것이다. 2008년에는 제12대 갈왕 드룩빠로부터 '깨달음'을 인정받으며 제쭌마(위대한 스승)라는 호칭도 얻었다.

〈서양인을 위한 불교 강의〉는 그가 1988년 동굴에서 나와 2000년 인도의 히말라야에 비구니 수행처인 동규가찰링 사원을 만들어 주석하기 전까지 유럽과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등 '서양인'을 위한 포교 활동하며 진행했던 법문 중 1996년과 1997년 미국, 그리고 1998년 호주에서 진행되었던 강의들을 편집한 것이다.

'강의'는 인도 히말라야에서 12년의 수행을 포함해 30년 넘는 텐진 빠모의 수행 이야기로 시작한다. 어딜 가나 법상 밑에 앉은 서양인 청중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가 강연의 대강으로 삼은 것은 △왜 명상을 하고 △어떻게 명상을 하고 △어떻게 명상을 '일상'과 접목할 것인가였다.

현대인, 특히 서구인들은 왜 명상에 열광을 할까?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과 초조를 진정시키려는 이유다. 물론 이게 명상을 배우는 동기로서 그리 나쁜 것은 아니다. 조금만 명상에 취미를 붙여도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텐진 빠모는 한 걸음 더 나가, 아니 궁극적으로 명상의 목적은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가 진정 무엇인지, 그리고 마음이 진정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라고 꼭 집어 말한다. 그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내어 세속을 뛰어넘는 의식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잠시 돌로 풀을 눌러 놓기보다는 김매는 것처럼 풀을 뽑아버려야 불안이나 초조 같은 싹을 없앨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이제 불교를 막 배운 일반인들에게 출가한 수행자처럼 종일 좌복을 깔고 앉아 있으라는 무리한 주문을 하지는 않는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업에 20~30분, 그리고 내면을 관찰하는 30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명상의 방법에 대해서도 텐진 빠모는 '불교 백화점'이라는 티베트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수행자답게 다양한 길을 제시한다. 이 책에는 강의 분량만큼 많은 문답들로 구성돼 있다. 청중은 솔직한 질문을 하고 텐진 빠모는 답변을 한다. 실은 독자가 궁금했던 내용일 수 있다. 단지 학문적인 호기심에만 머물거나 우리 일상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 실제 유용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 담겼다. 불교 수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이 책을 들라. 좋은 독서의 기회, 그리고 발심의 기회가 될 것이다.

# 행복의 좌표는 두 발로 선 현실에 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었다
그랜트 린즐리 지음
프런트페이지 / 1만8800원

## 6개월간 수도승 생활 오롯이 담겨
## 삶의 방향 잃었다면 마음 비워내길

인생에서 한 번쯤은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온다. 이는 삶의 무게와 끊임없는 기대에 지칠 때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생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라는 내면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었다'의 저자 그랜트 린즐리 씨도 같은 경험을 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어린 나이에 '죽음'은 상상해 본 적 없었기에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상실의 고통으로 일상마저 무감각해진 그는 결국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을 외면한 채 태국행을 선택했다.

목적지는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고 우편물도 46일 만에 도착하는 외딴 숲속 사원. 삶의 유한함과 불확실성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잃은 그에게 완전한 자립을 추구하는 수도 생활은 해답처럼 보였다.

그러나 상상과 달리 현실은 고군분투의 연속이었다. 명상하려고 앉으면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정오 이후 금식하는 생활도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아 남몰래 초콜릿을 먹어 치우기도 한다. 찰나의 실수, 감정에 매몰된 마음, 자꾸만 귀 기울이게 되는 욕망의 목소리를 저자는 허심탄회하게 들려준다.

낯설고 불편했던 일과는 어느새 가랑비에 적듯 익숙해졌고, 점점 마음의 문도 열게 됐다. 매일 새벽 탁발하는 스님들을 위해 공양을 준비하는 마을 주민들에 대한 공경심, 엄격한 스승 아잔 수키토와 마음을 터놓고 나눈 대화,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는 동료들과 우정을 확인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절감한다. 저자는 마침내 더불어 사는 기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는다.

특히 저자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비워낸 마음은 다시 충만해진다'는 불교의 지혜를 이해하며 폭풍 같던 마음이 고요해졌다. 평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는 행복의 좌표는 다름 아닌 우리가 두 발로 선 현실에 있음을 깨닫고, 세상에 돌아갈 채비를 마친다.

그가 수도승으로 지낸 6개월간의 경험과 감정이 오롯이 담긴 이 책은 독자들을 진지함과 가벼움 사이를 넘나들며 치유의 여정에 동행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과 슬픔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법을 깨닫고, 다시 살아갈 용기도 준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 책을 펼쳐보자. 치열한 세상살이에 지친 모든 이에게 고단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열쇠를 선물할 것이다.

김내영 기자

# 넘어져도 다시, 느릿느릿 땀 맺힐 만큼



느림보 달리다
김영관 지음
다우 출판 / 1만 2000원

보리수아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관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느림보 달리다〉를 출간했다. 시집에는 혼잣말로 내뱉듯 일상의 눈물과 웃음을 진솔한 언어로 담아낸 시 70편이 담겼다.

세상을 사는 것, 세상 누구에게나 삶은 좌절과 절망이 크든 작든 존재한다. 넘어져도 다시, 느릿느릿 이마에 땀이 맺힐 만큼 여전히 시를 쓰며 자신을 이겨내는 중인 '굼벵이' 김영관 시인에게 시는 세상 밖으로 문을 여는 존재다. 인생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에 있다는 자각의 계기이기도 하다.

한때 요리사로서 맛있는 인생을 꿈꿨지만 불의의 사고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된 김영관 시인은 불편한 현실의 한계 속에서도 시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

건강했던 과거의 기억, 뇌병변장애의 불편과 현실의 한계 속에서 희망을 찾는 일상의 속내를 이번 시집 안에 솔직하게 드러낸 시인은 △나는 겁쟁이랍니다 △사람냄새 △새로 시작 △인간 영관 사용법 등 4부로 구성된 시집 마지막에 '홀로서기'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기도 했다.

절망과 좌절로 길을 잃고 헤맬 때 보리수아래를 만나 다치면서 못했던 것들을 시도해 볼 정신머리와 용기가 새겼고 '글쓰기 치유의 힘'을 알게 됐다는 김영관 시인. 그는 "제 시를 읽고 딱 한 분이라도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나도 글을 써봐야 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대성공"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 호흡이 삶 바꾸는 열쇠 될 수 있을까?

## 강설 스님의 호흡법, 삶 회복하는 길
## 호흡과 화두, 삶과 수행의 조화 강조



스님의 호흡법
전채연 지음
황금테고리 / 1만7천원

강설 스님이 전하는 40년 수행 공력의 비밀을 담은 〈스님의 호흡법〉은 우리가 잊고 지내던 '숨'에 새로운 시선을 던진다. 현대인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강력한 힘이 바로 올바른 호흡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은 저자가 강설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좌선을 배우며 겪은 시행착오와 3년여의 여정을 생생히 풀어낸다. 20여 년간 사회생활을 이어오며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던 저자는 스님의 호흡법을 실천하며 어떻게 내면의 안정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강설 스님의 호흡법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체계적이다. 척추를 바로 세우는 동작, 횡격막을 활용한 호흡법, 감정을 정화시키는 신경 청소법 등은 현대인의 생활에 맞춘 실용적인 방법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설 스님은 특히 호흡과 화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상 속에서 호흡을 끊기지 않도록 훈련하면, 종교적 수행을 넘어 삶 전체를 수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의 호흡법〉은 삶을 새롭게 재건할 잠재력을 제공한다. 호흡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메시지로 책을 마무리하는 〈스님의 호흡법〉은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온 이들에게 숨이 가진 힘을 상기시킨다.

정현선 기자




까르마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가?
까르마
'업보'와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까르마'에 대해 인도의 학파들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맥락을 명료하게 분석하였다.
요하네스 브롱코스트 지음, 최경아 옮김/신국판/무선/212쪽/값 15,000원

불타 수행의 결정체이자 정법의 상징인 불발佛鉢!
불발, 부처님 발우 이야기
경전 속 묘사부터 의미에 이르기까지, 부처님 발우를 둘러싼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은, 불발을 주제로 한 최초의 체계적인 저서이다.
권오민 지음/사륙배판 변형/무선/컬러/544쪽/값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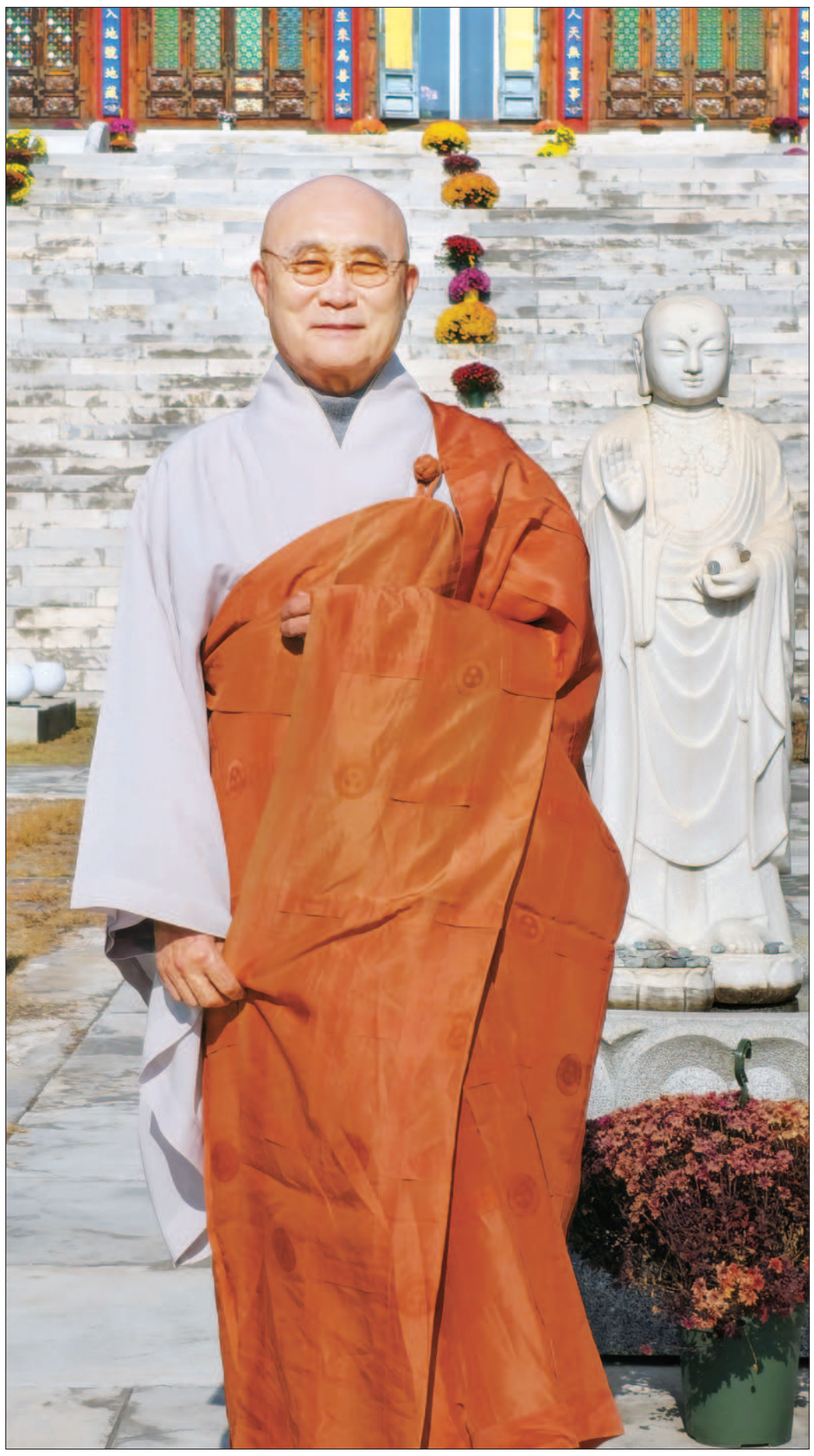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가피!
육자진언의 수행체계
'옴마니반메훔' 여섯 글자의 짧은 진언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염송하기가 용이하면서도 그 공덕이 커서 해탈로 이끄는 수승한 방편이다.
법장 지음/신국판/무선/324쪽/값 2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지상백고좌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 “좋아하되 집착 말고, 미워해도 오래 담지마라”



**지원 스님**은… 설악산 백담사에서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조계종 포교원장과 호계원장을 지냈으며, 제9 · 14 · 15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1983년 은평구에 삼보사를 창건하여 도심포교의 모범을 이뤘으며, 2006년 경기도 양주에 육지장사를 창건, 수행 기도도량으로 일궜다. 198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조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 시집 〈장명등〉, 서간문집 〈마음이 열리면 천당도 보이지요〉 〈지원 스님의 100세 건강법〉 등 다수가 있다.

도리산으로 가는 길은 화려하다. 굽이굽이 돌 때마다 가을이 빚어내는 빛깔이 달랐다. 육지장사는 남한 제일의 지장보살 도량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웅전 앞에 서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마음이 밝아지는 느낌이다. 인터뷰는 지원 스님이 주석하신 도리산 육지장사에서 진행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을 여쭈었다. 가을빛이 좋아 ‘아제아제 바라아제 순례길’을 걸으면서 명상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셨다.

육지장사는 지장보살의 정신을 살려 창건한 사찰이다. 스님은 지장보살의 가피를 입었기에 육지장사를 건립하면서 ‘만일지장기도’를 결사했다. 만일이면 30년이 걸린다. 이제 27년이 지났고, 2년 10개월 후엔 회향하게 된다.

〈지장경〉은 불교의 연기법인 인과응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놓은 경전이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읽기에 좋은 경전이라고 소개한다. 〈천수경〉도 정말 좋은 경이니 날마다 독송하기를 권했다.

“불교의 믿음의 과정은 ‘신해행증(信解行證)’입니다.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경전을 이해하는 것이고, 셋째는 행하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고, 넷째는 증득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는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생각으로 짓는 행위 등 삼업(三業)을 좋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 있어요. 수행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가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설악산 백담사에서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4년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 1970년 통도사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은사스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이 수행에 버팀목이 되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지원 스님은 백장청규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은사스님은 중국의 백장 선사께서 말씀하신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가르침을 항시 강조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절 살림을 꾸리다 보니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땐 그것이 수행이었지요. 지금도 도량 청소하고, 수리할 곳이 있으면 수리하면서 살아요.”

지원 스님은 백담사 무문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안거를 수선했다. 무문관 수행을 하신 이유가 궁금했다.

“공직 봉사를 마무리하고 인생 총정리를 하기 위해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했어요. 그때가 세납 74세이었는데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문관은 독방생활을 하여야 하고,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핸드폰도 가져갈 수 없어요. 사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님은 무문관에 입방할 때 48공안을 추려서 엮은 〈무문관〉을 가지고 들어갔다. 그리고 매일 공안 하나를 참구했다.

“무문관에서 수행할 때 하루에 공안 하나씩을 사유했어요. 〈무문관〉의 제1칙 조주구자(趙州狗子)부터 48칙 건봉일로(乾峰一路)까지

> 〈신심명〉에서 이르기를
> ‘미움과 사랑 양변을 버린다면
> 道는 환하게 명백히 드러난다’
>
>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들을
> 내려놓으면 행복 이른다는 뜻
>
>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서
> 그 마음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보았어요. 조주 선사에게 한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하고 물었는데 조주 스님이 ‘무(無)’라고 답했어요. 이것이 제1칙 조주구자(趙州狗子)인데, ‘무(無)’란 분별심이 없는 본래 청정성을 지니고 있는 무심(無心)입니다.”

지원 스님은 “〈무문관〉의 공안을 다 사유하고 난 후 하나하나의 공안들이 구슬처럼 단주에 꿰면 하나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안거 후 공부한 것을 3년 동안 다듬어서 〈무무관 강설집〉으로 엮었다. 스님은 ‘백고좌’를 생각하고 선덕 스님들을 차례로 모시고 〈무문관 강설〉 법회를 열어나갔다. 그때 200명이 넘는 불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무문관 수행은 마무리 작업이었고, 수행 결실이 잘 맺어져 가는지를 점검하는 회향의 시간이었다”라는 스님의 말씀에 출가자는 부처님의 제자로써 자기검열에 엄격해야 함을 알게 됐다.

육지장사에는 다실을 겸한 ‘선다일미(禪茶一味) 갤러리’가 있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를 마실 수 있다. 지원 스님은 차의 맛은 물론이거니와 차의 효능에 대한 공부를 비롯하여 차와 건강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차에는 생차가 있고, 발효차가 있어요. 차를 발효하면 카페인 성분이 60%나 없어지고 테아닌(Theanine) 성분이 나와요. 테아닌은 뇌를 편안하게 해주어서 잠을 잘 자게 합니다. 그래서 명상과 차의 관계에서 차생활만 잘해도 명상의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명상을 하면 면역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알파파와 세타파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2019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논문의 큰 줄거리를 보니 산소 결핍에서 치매가 오고 암이 오고 각종 질병이 온다고 해요. 호흡명상을 하면 산소 결핍을 막아주니 건강에 좋지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수행의 방법으로 수식관을 말씀하셨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하셨어요.”

선다일미가 갖는 깊은 뜻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온 지원 스님은 포교 방식 역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막연하게 ‘단전호흡이 좋다’ ‘명상이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왜 좋은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야만 MZ세대들이 불교를 케케묵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실제 지원 스님은 포교 현장에서 일해 보니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 세납 65세에 동국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다. 소통과 심리학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불교의 선문답이 최상의 상담법’임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제로 하여 석사 논문을 썼다. 박사학위는 〈금강경〉 연구로 받았다. 차에 대해서는 월간지 〈차의 세계〉에서 연재하며 더욱 깊게 천착하게 됐다.

평소 궁금했던 것이 있어 지원 스님에게 질문을 던졌다. “조주 스님은 도(道)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끽다거(喫茶去)’라고 답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습니까?”

13면에 계속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스님 초창기 법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판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지상백고좌

육지장사 회주 지원 스님

# “내 에너지 원천 ‘선명상’… 마음도 운동해야 합니다”

12면에 이어

이에 대해 스님은 “평상심”이라고 단박하게 말했다.

“마조 스님은 ‘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평상심(平常心)이라고 답했어요. 평상심이란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이 있는 행복한 세계입니다. 조주 스님의 ‘끽다거’는 평상심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요. 도는 특별한 것이 아니니 다른 곳에서 찾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인들은 도라고 하면 보통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정관념으로 ‘평상심(平常心)을 도(道)’라고 하면 굳이 힘든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평상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평소 우리들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온갖 감정의 기복에 따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탐욕도 부리고 화도 내는 어리석은 마음이 작용하는데 이런 마음은 일상심입니다. 일상심에서 벗어나야만 평상심에 이를 수 있어요.”

지원 스님은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관심이 많다. 불자들에게도 불교식 건강법을 전하고 있다. 몇 해 전에는 〈지원 스님의 100세 건강법〉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오래전부터 불가에서는 몸과 마음 건강을 위하여 명상과 단식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육지장사에서 운영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단식, 온구체험, 쑥뜸 등이 들어있어요. 단식은 제가 몇 년간 해 보니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기에 프로그램에도 넣었어요.”

스님은 1박 2일 단식을 권한다. 직장인이거나 처음으로 단식을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점심까지 단식하면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스님은 “위와 장을 비우면 집착과 욕심까지도 비워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체온을 1도 올리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 신진대사가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니 각종 병을 일으키게 되겠지요.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도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지원 스님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가꿀 것을 강조했다. 특히, 날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몸에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호흡명상을 습관의 하나로 정해 놓고 날마다 3분씩 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6월 22일 양주 육지장사에서 열린 야외 미술관과 붓다정원, 선다일미 갤러리 착공식 테이프 커팅식 모습. 3만 3000㎡ 부지에 문화포교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먼저 호흡명상으로 몸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조가 자율신경 체계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기분이 좋고 나쁜 것도 전부 다 신경의 작용입니다. 명상은 자율신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가져오죠. 호흡명상을 하면 우리의 면역력 체계가 강화되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몸 신경 자체가 편안해지니 뇌가 편안해지고, 이렇게 되면 잠도 잘 자고 항상 기분이 좋아요. 또 뇌에서 좋으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엔돌핀과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수박을 탁 깨서 빨간 것을 직접 맛보아야 맛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명상의 참맛을 느끼려면 날마다 수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지원 스님은 현재 세계평화대탑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토목 공사도 90% 가량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사를 발원하게 된 계기를 지원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세계인에게 자유와 평화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즉답하며 말을 이어갔다.

**선명상은 마음운동…정신능력 개발**
**습관이 되면 집중력, 창의성이 증가**
**“매일 명상수행 습관 들이길” 제안**

“우리의 본래 청정한 그 마음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결돼 있으며, 인드라망의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세계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인들의 자유와 평화와 이기쁨을 대탑이라는 상징물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세계평화대탑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맛볼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울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현대인에게 맞는 걷기명상 프로그램 ‘아제아제 바라아제 순례길’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진언으로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의 세계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육지장사는 도리산을 배경으로 기산 저수지와 마장 호수가 있어 걷기 수행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1코스는 ‘화목의 길’이라고 하여 그 안에 3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참회의 길로 회광반조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용서의 길이고, 셋째는 감사의 길입니다. 1코스에서는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고 3분 멘트를 듣게 되어있어요. 제2코스는 지금 개발 중입니다. 기존의 템플스테이에서 하던 것인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킨 것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순례길의 특징은 배너에다 QR코드만 찍으면 3분 멘트가 나오는데 우리말이 먼저 나온 후 일본어·영어·중국어가 나오게 되어있다. 용서의 길, 참회의 길, 감사의 길을 만든 것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행한 것을 담고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다. 걷기명상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던 만큼 지원 스님은 반려동물 템플스테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순례길, 아바타 포교 등 다양한 포교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했다.

“저의 에너지는 ‘선명상’에서 나옵니다. 명상은 마음운동인데, 마음운동을 하면 신체적 힘과 더불어 무한한 정신능력이 개발됩니다. 명상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통찰력이 예리해져서 남다른 집중력과 창의성이 몇 배로 증가됩니다. 그 결과 열정과 신념, 굳은 의지가 생겨 두려움이 없어져요.”

지원 스님은 우리의 몸은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이 조정하는 대로만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뷰 말미, 연말연시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마음에 새길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은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신심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도(道)는 환하게 명백히 드러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두 가지 감정을 마음에서 내려놓으면 지극한 진리, 즉 행복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속성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기에 한 번 좋다고 해서 그 마음이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좋아하되 너무 집착하지 말고, 미워하더라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스님은 갑자기 “지금 이 세상에서 존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머뭇거리자 스님께서 답하셨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호흡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으며, 마음도 강건해져 세상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오니 앞산의 단풍은 더욱 붉어져 있다.

문윤정 / 작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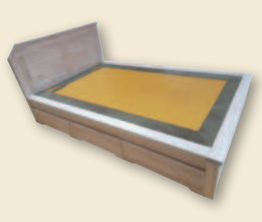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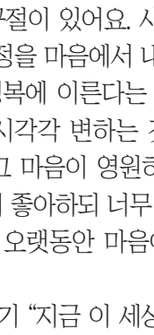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love is fine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㉓ 칠불암과 마애불상군



▶한줄 요약
칠불암의 법당과 마애불상 모두 동쪽을 향해 조성되어 있다.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초기 불교가 전래 됐을 때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동쪽의 샛별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여 인도의 불상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 칠불암, 인도 영향 받은 석굴사원 아니었을까

염불사지 삼층석탑에서 과수원들을 옆에 두고 칠불암을 향해 숲길을 900m 정도 걸어가다 보면 오른편에 승소곡(僧燒谷)으로 향하는 길이 나온다. 계곡의 이름을 해석하면 스님들의 다비장이 있는 골이라는 뜻이 된다. 500m 정도 올라가면 승소골 절터(승소속 제1사지)가 있는데, 다비를 한 후 스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던 절터라고 전한다. 이곳에는 참으로 예쁜 승소골 삼층석탑이 있었다. 지금은 경주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나타나는 왼편 작은 소나무 언덕의 맨 위에 세워져 있다.

1930년에 승소골 절터 서북쪽의 언덕 위에 무너진 채 발견되어, 1935년 경주박물관에 옮겨졌다. 이후 1975년 현재의 소나무 언덕 위에 세워 놓았다.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2층 기단의 삼층석탑이다. 상륜부는 없어진 상태이며 높이는 356cm이다. 상하 기단에 모두 안상(眼象)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삼층석탑 가까이에 다가서지 못하기에 1층 기단의 안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괜찮다. 각 면에 두 개씩 새겨진 멋지고 예쁜 2층 기단의 안상이 멀리서도 잘 보이니까. 무엇보다 멋진 석탑인 것이 1층 몸돌마다 하나의 큰 안상이 새겨져 있는데 안상의 안에 양각의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안상의 문양을 보고 조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연구한 적이 있다. 그래서 여러 안상 문양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왜 명칭이 안상이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안상은 코끼리 눈이라는 뜻인데 코끼리 눈일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를 보면서 '명칭이 잘못 됐구나' 했다.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밑 기단은 입체적인 상다리다. 이 상다리의 무늬가 석탑에 새겨진 안상과 같은 모양이었다. 감은사지 동 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상다리의 공간 안에는 신장이 있었다. 갑자기 승소골 삼층석탑 일층 몸돌에 새겨진 안상 안의 사천왕상이 생각되었다. 입체적인 상다리 무늬를 돌에 새기면서 안상이라고 하는 명칭의 문양이 된 것이다. 안상이란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이름 지은 명칭이라고 한다.

경주박물관 승소골 삼층석탑 안내판에는 안상을 '상다리 무늬'라고 명칭하고 있다. 나는 경주박물관에 있는 승소골 삼층석탑의 안내판에 있는 명칭인 상다리 무늬가 안상보다 정확인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박물관에 전시된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상처럼 입체적인 불상의 기단 받침도 입체적인 상다리 무늬인 것이 확인된다. 안상이 아니라 상다리 무늬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제강점기 일본사람에 의해 시작된 안상이라는 명칭을 상다리 무늬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주 남산 칠불암 마애불상군의 모습. 현재 국보로 지정돼 있다.

삼층석탑 상층기단의 한 면마다 2개의 상다리 무늬(안상)를 새긴 석탑은 8세기 말~9세기 초 조성된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에서 시작된다. 이것은 〈삼국유사〉의 '무장사미타전조(鍪藏寺彌陀殿條)'와 '무장사지 아미타불 조상 사적비'를 통해 확인된다. 〈삼국유사〉는 원성왕(재위 785~798)의 아버지 효양이 무장사를 세웠다고 하며, 사적비에는 소성왕(재위 799~800)의 명복을 위해 아미타불을 조성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8세기 말~9세기 초에 삼층석탑도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후 9세기 전기가 되면 석탑의 상층기단 한 면에 2개의 상다리 문양을 새기는 양식은 사라진다. 승소곡 삼층석탑은 기단에 2개의 상다리 문양을 새기는 양식을 따르면서, 1층 몸돌에도 상다리 문양을 새기고 양각으로 사천왕상을 새기는 새로움을 더했다. 종합해보면 승소곡 삼층석탑은 9세기 전기 조성된 삼층석탑이 된다.

사천왕은 동쪽에는 지국천왕(持國天王), 서쪽에는 광목천왕(廣目天王), 남쪽에는 증장천왕(增長天王), 북쪽에는 다문천왕(多聞天王)이 있다. 사천왕은 불법을 지키는 하늘의 신으로 수미산에 악신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다. 사천왕의 손에 든 지물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달라서 누가 무엇을 들고 있다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다만 탑을 들고 있으면 신라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북방의 다문천왕이다. 다문천왕은 사천왕의 대장으로 비사문천(毘沙門天)이라고도 한다.

**숲 따라 1시간여 가면 칠불암 도착**
**남산 대표 마애불상군, 순례자 맞이**
**법당 마애불상 모두 동쪽 향해 조성**
**초기불교 전래됐음을 보여주는 증거**

천왕이 들고 있는 병장기는 이해하기 쉽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밀교의 영향으로 병장기인 지물이 변한다. 동방의 지국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다. 전투를 준비하는 신장이 비파를 들고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을 즐기는 건달바라는 신을 지휘한다는 의미다. 또한 용을 손에 쥐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광목천왕이 있다. 이것은 용이 아니라 이무기다. 용이 아닌 해답은 한 손에 이무기를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 것이 힌트다. 이무기는 여의주를 물고 있어야 용이 된다. 그렇기에 여의주를 뺏어 힘 빠진 이무기를 잡은 모습인 것이다.

다문천왕이 탑을 들고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다. 사천왕의 대장인 다문천왕이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을 어깨 위로 들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다. 불교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면 된다.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란 믿음의 상징으로 탑을 들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탑이 아니라면 쥐라고 착각하는 입에서 보물을 토해내는 몽구스를 들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다문천왕을 재물복을 주는 신으로 섬겼던 옛 문화의 흔적이 남은 것이다. 다문천왕이 탑이 아니라 허리에 손을 대고 있다면 손에 몽구스가 있다. 이러한 몽구스를 잡은 모습은 구례 화엄사, 여수 흥국사, 순천 송광사, 양평 용문사, 홍천 수타사의 다문천왕에서 확인된다.

이제 칠불암(봉화곡 제1사지)을 향해 걸어보자. 탁 트인 풍경이 펼쳐지는 남산의 다른 코스에 비해 칠불암 가는 길은 숲속 안을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가야 하기에 지루함이 있다. 가다가 작은 개울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들기도 하며 쉬엄쉬엄 걸으면 대나무 숲길이 나온다. 여기서 계단을 오르면 칠불암이다. 칠불암을 오를 때마다 느낀다. 길을 좀 다듬으면 어떨까 하는. 칠불암까지 다듬은 조금만 좀 넓고 편한 길이었으면 참 좋겠다.

칠불암은 암석 바위산이 시작되는 중턱에 축대를 쌓아 터를 만들어 조성되었다. 남산을 대표하는 마애불상군으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형성과 규모가 순례자를 맞이한다. 지금의 건물은 1930년대에 세워졌다. 그러나 그 이전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사찰의 터에 세운 것이다. 경내 대지는 산 중턱이라 경사가 있기에 북쪽과 동쪽에 축대를 쌓아 지금의 터를 만들었다. 법당과 마애불상 모두 동쪽을 향해 조성되어 있다. 동쪽을 향한다는 것은 초기불교가 전래 됐을 때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동쪽의 샛별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석가모니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여 인도의 불상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한국불교의 초기 시대인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 절터나 불상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이유다. 이후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이 되면 거의 모든 사찰은 남쪽을 향하게 된다. 이유는 인도불교 문화에서 중국불교 문화의 전통으로 바뀐 것이다.

중국불교 문화에서 부처님은 황제나 왕의 존칭으로 표현된다. 그렇기에 부처님 계신 건물을 황제나 왕이 있는 건물처럼 전이라 명칭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황제나 왕은 남쪽을 향해 앉는다. 그렇기에 중국불교의 문화에서 불상은 남쪽을 향하는 것이 전통이다. 그렇기에 한국의 초기 불교문화에서는 동쪽을 향해 조성되던 불상이 조선시대가 되면 남쪽을 향하는 불상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상식 하나 더. 불상의 수인도 인도불교의 영향과 중국불교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도는 오른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좌상우하라 해서 왼편을 숭상한다. 그렇기에 아미타불상이나 비로자나불상의 수인에서 오른손이 올라오면 인도불교의 영향이고 왼손이 올라오면 중국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어찌 되었건 동쪽을 바라보는 칠불암의 불상은 인도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초기의 한국불교의 특징이다.

통일신라시대 조성된 7구의 불상이 있는 칠불암은 경내에서 석경의 파편들이 발견되었다. 총 4점이 일제강점기부터 출토되어 국립경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석경은 화강암에 새긴 〈금강경〉으로 8세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림사지에서 수습된 〈법화경〉 석경이나 구례 화엄사 각황전 내벽에 세운 〈화엄경〉 석경처럼 칠불암은 〈금강경〉을 새긴 석경을 건물 내부에 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칠불암 법당 옆에는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길이는 8.4m이고 높이는 2.15m의 반원형이다. 이 바위의 중앙 면에 아미타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삼존불 정면으로 1.5m의 간격을 둔 앞에 사각인 방형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가로 1.8m에 높이가 1.9m 정도 되는데, 각각의 면마다 불상을 새긴 사방불이 있다. 무엇보다 특징적인 것은 삼존불이 새겨진 바위의 뒤쪽과 측면에 목조 건축의 흔적인 사각의 홈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방불의 바위 윗면에도 기둥을 세운 흔적이 남아있어서 건물이 칠불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상상해본다면 칠불암은 인도 석굴사원을 모델로 지어진 경주 남산의 석굴사원이 아니었을까. 특히나 내부에 석경을 두른 석굴사원으로 얼마나 멋지고 경이로웠을까.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509호 | 15 | 전면광고

만약 법을 듣기를 좋아하여
싫증을 내지 않으면
불가사의한 법을 깨닫게 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 포교당(급) 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조정 가능)

010-2847-6289

##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 사 찰 안 내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 문전천황 기도도량
- 약 8천평 15억원

054-972-1080

##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 사찰(급)안내

- 동해안 (영덕)
- 임법당, 손 볼곳없는 깔끔한 도량
- 올대지 326평, 건물 40평 두채, 등기있음
- 법당 15평, 공양간 20평, 방사 5개 큰창고 2개, 목욕탕 3개, 야외화장실 2
- 노천 지장입불, 산신노천석불, 용궁
- 즉시법회 가능
- 1억 4500만원

010-2008-037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7000만원

010-5804-5100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 사 찰 안 내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 5300평 자연녹지 (현재 인법당 있음)
- 평당 10만원(가격 절충)

010-6319-8606

## 사 찰 안 내

- 경남
- 종교부지 : 300평
- 대상사찰 : 26.6평
- 사찰부지 : 306평 총 : 632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6억 8000만원

010-2993-3391

## 사 찰 안 내

- 위치 : 양산
- 종교용지, 대지 218평 사유지 포함 500평 사용
- 주차 10대, 건평 68평 1층 요사 42평 방 4개, 화장실 3개 2층 대웅전 26평, 식당 2개, 실외 화장실 1개, 산신각 6평, 난방 심야전기,
- 지하석수 1일 150톤 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 집기일체 포함, 즉시법회 가능
- 시가 이하 6억 5000만원 급매 (절충가능)

010-6425-8274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동래구 온천3동 광혜병원옆
- 포교원 3층 약50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스님방
- 전세 1000, 월세 70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3553-500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시 사등면
- 대지 : 300평, 임야 : 2700평
- 건물 : 법당 산신 용왕 요사채 넓음
- 전망 최상, 약수물
- 가액 : 2억 7500만원

010-9127-5355

## 사 찰 안 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 대지 : 232평 법당 요사채
- 천도재, 법회 가능
- 금액 : 13억원

010-4585-6807

##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암 직인 개인공고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암 직인을 다음과 같이 개인(공고)합니다.

- 사찰명 : 제 12교구 해인사 말사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암
- 주 지 : 지원 스님
- 주 소 : 경남 함안군 산인면 입곡1길 54-17

직인

1. 직인 공고
1)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암 주지 새 직인
2) 직인 개인일 : 2024년 11월 26일
3) 직인 개인일 이후로부터 과거 광명암 주지 직인은 무효임

불기2568(2024) 11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암 주지 지원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 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만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만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혼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안내

1509호 | 16 | 전면광고

도둑의 침해를 당하면 그 괴로움이 일생에 그치지만 오근이라는 도둑의 화는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그 해는 지극히 무거울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 선禪갤러리 작품실

수강생 모집

탱화 불화 ⇨1년 과정 ₩400만원(주2회)
선화 [달마도 관음도 동자도] ⇨3개월 과정 ₩100만원(주2회)
＊요일과 시간(2시간) 선택 자유＊

한국전승문화연수원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11 (4층)
선禪갤러리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0 (1층)
(02) 722-3459 (010) 4943-3459

##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개인들운명은 99% 정해져있다

010-5105-5000

##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 비구니 · 보살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영적으로 고통받는
비구니 기도 스님 두 분 혹은
보살님 두 분 구함
010-8298-3802

##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허리병 고치는 법
- 만병을 고치는 법
- 배울 분 받을 분
- 바로 해결되는 비법
- 54년 전통

010-3829-7582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일체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 투사로 길들여지지 않는 춤꾼들의 무대



이안의 Media In Buddha

## ㊷ 경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



엠넷 경연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 한 장면.

〈글래디에이터 Ⅱ〉가 개봉되었다. 전편의 제작비 두 배를 웃도는 2억 1천만 달러를 들여 만든 〈글래디에이터 Ⅱ〉는 박스오피스 1위이기는 하지만 전편의 흥행 기세만큼 대단하지는 않다. 대중들은 〈스파르타쿠스〉나 〈퀴바디스〉, 〈폼페이 최후의 날〉과 같은 헐리웃 영화들 덕분에 로마 제국 시대에 원형극장에서 목숨을 건 싸움판으로 대중들을 길들이는 정치를 보아왔다. 그 시절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를 상대하든,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든 싸움에 나서는 이들은 '검투사'였다. 그 검투사가 제국이 점령한 패전국의 전사였든, 시민의 자격을 얻지 못한 노예였든, 정치적 음모로 그 판에 끌려간 귀족이었든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중을 위해서 싸워야했다. 영화도, TV도,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죽음의 스펙터클을 유흥의 쾌락으로 제시하는 것은 잔혹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군중들을 길들이는 제국의 통치 수단이었다.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적을 만들고, 편을 짓게 하고, 승부를 겨뤄 이긴 자만 살리는 토너먼트 방식은 '스포츠'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러던 것이 미디어와 대중문화의 시대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

자본주의 시대 미디어 제국의 통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온갖 분야에서 싸움과 등수를 겨루게 한다. 살아남아야 다음이 있는 서바이벌 게임 방식은 미디어 채널을 타고 영역을 넓혀왔다. 음악이며 무용까지도. 대중의 참여를 승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키울 수 있는 만큼 더 크게 판을 넓혀 가면서.

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전문 채널인 엠넷이 서바이벌 전투장으로 끌어들이면서 대중문화의 판도를 바꾼 영역 가운데 '춤'이 있다. 처음은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시리즈, 〈스트리트 맨 파이터〉처럼 같은 스타일 춤꾼들끼리 모여 '배틀'이라는 방식으로 춤 솜씨를 겨루는 프로그램이었다.

스트리트 댄스는 미디어 시대가 된 1960년대 이후, 고전적 전통 무용이나 발레, 현대무용 등 이른 바 '순수무용'계 바깥 다양한 대중문화 기반의 춤을 일컫는 말이 되었고, 그 춤이 대중음악, 특히 백댄서와 합을 맞추는 청소년을 겨냥한 아이돌 문화와 결합되며 무용계 바깥에 있는 대중적 춤의 유행을 이끌어 왔다. 대개 스트리트 댄서는 무대마다 있으면서도 주인공이 아니라 연예인인 아이돌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처럼 여겨져 왔고 이들의 춤은 '방송댄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스우파' 이후 댄서들은 글로벌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걸 수 있게 되었으며, 춤을 추는 퍼포머로서 뿐 아니라 안무가로서의 창작 능력에 대한 존중도 받게 되었다. 물론 미디어와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까지도. 이들 안무가 겸 댄서의 존재는 특정 소절을 '와우 포인트'로 반복하는 노래를 대중이 몸짓까지 칼로 잰 듯 각 맞춰 춤추며 따라하게 하는 K-pop의 유행을 이끌어 왔고, '스우파'를 통해 당당하게 주인공이 되었다.

**순수 무용의 '춤', 종교 의례 · 제례서 비롯돼**
**단련된 온몸으로 만든 간절한 몸짓들 '황홀'**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과정은 검투사들 대결에 못지않게 치열했고, 회를 거듭하며 진행되는 배틀과 탈락의 과정은 안타까웠다. 그 처절한 서바이벌 과정을 겪어내는 동안 대중은 잘 추는 춤이 오히려 음악을 유행시키는 대중문화의 확대재생산을 보게 되었고, 미디어는 그 상품성의 가치와 이익을 더 넓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역을 스트리트 댄스를 넘어 '순수 무용'에까지 펼치게 되었다. 이전에도 엠넷은 서바이벌 무용대결 프로그램 〈댄싱9〉 시리즈를 제작해 왔으나, 그때는 장르 불문, 국적 불문 개인 자격인 참여자를 제작진이 임의로 두 팀으로 나눈 경쟁 형식이었기에 무용계 자체에 대한 영향력이나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방송되고 있는 〈스테이지 파이터〉는 아예 장르적으로 대학 입시에서 가르듯 순수 무용계를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으로 나누고 참여자를 모았다. 스트리트 댄스 또는 방송댄스는 입시에서는 주로 '실용무용'으로 분류되며, 굳이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거치지 않더라도 '크루'를 통한 진입이 가능하지만 '순수무용'은 다르다. 진입 자체가 좁은 문이다.

다른 장르나 계열에 대해 배타적이고, 입시 제도를 통하는 동안 서열이 나뉘며, 무대를 오를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콩쿠르와 오디션에서 숱하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재능이 있더라도 어릴 때부터 가족의 뒷받침 없이는 무용계 진입을 꿈꾸기 어렵다. 탄광촌 광부의 아들이 무용학교 들어가는 것이 존재를 걸고 세상을 뒤흔들어야 겨우 가능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처럼.

그뿐인가. 무용계에 발을 디디게 되더라도 주인공이 될 무대는 많지 않으며, 공연을 하게 되더라도 애호가 아닌 다수의 대중을 만날 기회가 없는 분야가 순수 무용이었다. 그런데 〈스테이지 파이터〉는 오직 남자 무용수들, 그것도 국내 무용수로서는 최고의 무대인 국립 무용단부터 해외에서 이름난 발레단과 발레 학교를 거친 무용수들부터 무용과가 있는 학교들의 유망주들까지 모아 대결을 펼치게 만들었다. 무용애호가는 애호가대로, 아니면 아닌대로 주목하게 만드는 방식인 서바이벌 방식의 이 프로그램은 참여한 무용수들을 글래디에이터처럼 만들고 싶었던 것 같다.

출연자들 사이를 라이벌 구도로 연출하고,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분야가 아닌 다른 장르까지 해내라고 하고, 심지어 춤이라면 반드시 필요한 음악도 발레든 한국무용이든 현대무용이든 상관없이 K-pop에 맞추라고 한다.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보면 출연한 무용수들이 여태껏 몸과 몸짓을 단련하는데 쏟아왔던 모든 노력과 재능을 '파이터'라는 이름으로 서바이벌 자체의 눈요기와 K-pop 음원 시장, 그리고 조회수로 수익 내는 영상 콘텐츠 자원이 되도록 짜맞추려는 의도가 살벌하게 보인다.

출연자들이 파이터가 아니고 춤꾼 그 자체로 보이는 장면들은 본방송을 통해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계급 이동과 평가를 보여주는 본방송이 아니라 출연자들의 진심과 관계, 그들이 만든 무대의 온전한 모습은 '풀버전'이나 '비공개' 영상으로 이미 경쟁의 결과가 끝나고 나서야 보인다. 그 영상들에서 무용수들이 보이는 모습은 '춤'의 본질을 되새기게 한다.

원래 막춤의 몸짓 말고 순수 무용의 '춤'은 기원 자체가 의례와 제례에서 비롯되었다. 불교만 해도 바라춤, 작법무, 법고춤, 타주춤 같은 승무로 공양해왔다. 음악이 되는 범패로는 음성공양을, 몸짓이 되는 춤으로는 신업공양을 하는 불교의 의식은 참으로 장엄해서 한국 전통무용의 큰 바탕이 되어왔다. 〈스테이지 파이터〉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을 춤으로 겨루는 글래디에이터, 무대를 뺏고 뺏기는 파이터로 만들려 했으나 무용수들은 방송되지 않은 영상만 보아도 파이터로 길들여지지 않고 있다. 오직 여러 해 갈고 닦아야 해낼 수 있는 몸짓, 그 몸짓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단련해온 온몸으로 아름답고 간절한 무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들의 신업공양이 K-pop 음원 말고도 무용 자체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무용을 보는 것이 K-pop 공연 하나,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일상이 되는 바탕이 되기를. 그리고 한국무용수가 K-pop 안무곡 말고 제대로 된 궁중무용이나 승무를 보여주는 무대도 방송에서 만들어 주기를.

〈영화평론가〉

##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㊺

**1. 팔정도(八正道)의 덕목 중, '폭력을 쓰지 않고, 바른 행동으로 자신과 남에게 이롭게 행함'을 의미하는 것은?**

① 정견(正見) ② 정정(正定) ③ 정명(正命) ④ 정업(正業) ⑤ 정사유(正思惟)

해설 : 팔정도는 바른 인식인 정견, 바른 생각인 정사유, 바른 언어인 정어, 바른 행동인 정업, 바른 생활인 정명, 바른 노력인 정정진, 바른 관찰인 정념, 바른 집중인 정정을 말하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즉 도성제를 이루는 항목들이다. 폭력을 지양하고 선행을 지향함은 구체적인 행동임으로 정업에 속한다.

**2. 불교에서 '아집을 버린다, 나를 버린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② 있지도 않은 나를 있다고 생각하는 집착의 마음을 버려라.
③ 모든 것은 끝없이 변화하므로 모든 것을 빨리 체념하는 것이 좋다.
④ 나와 내 경험이라는 고집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⑤ 끝없이 변화하는 육체, 감정, 생각, 의지, 의식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라.

해설 : 불교에서는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를 부정한다.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상실감을 느끼고 빨리 체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명확히 알고 자아의식을 기반으로 한 번뇌가 괴로움이하는 현상을 불러움을 명확히 인식하여 이로부터 자유로워질 노력을 기해야 한다.

**3. 사성제(四聖諦)는 '괴로움,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는 불교의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 중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를 지칭하는 용어는?**

① 집성제 ② 고성제 ③ 삼성제 ④ 팔정도 ⑤ 멸성제

해설 : 순서대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고성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집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멸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도성제라고 한다. 그럼으로 답은 ②이다. 팔정도는 도성제의 구체적 실천사항으로서 첫 문제의 해설에 내용이 나오고 있다.

**4. 사성제 중 팔정도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멸성제 ② 도성제 ③ 집성제 ④ 고성제 ⑤ 팔성제

해설 : 팔정도는 도성제에 해당한다. 위의 해설 중 팔정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참조.

**5. '중도 사상'의 의의를 바르게 말한 것은?**

① 대립과 갈등 ② 조화와 균형 ③ 신앙과 믿음 ④ 파괴와 창조 ⑤ 시작과 종말

해설 : 중도는 파괴와 창조, 시작과 종말같은 양극단 및 고정적 신앙, 믿음과 같은 닫힌 도그마를 떠나 자기 스스로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찾아가는 주체적인 태도를 말한다. 대립과 갈등은 중도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이 해결점은 조화와 균형에 있다.

**6. 불교에서는 사람의 행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① 삼계 ② 삼장 ③ 삼업 ④ 삼법인 ⑤ 삼학

해설 : 불교에서 사람의 행위는 몸으로 짓는 신업, 입으로 짓는 구업, 뜻으로 짓는 의업, 이 세 가지 업으로 이루어져있다하며 이를 삼업이라 한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불교의 우주관,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이라는 불교의 경전관, 삼법인은 제행무상, 제법무아, 일체개고라는 불교의 진리관, 삼학은 계학, 정학, 혜학이라는 불교의 수행관을 말한다.

정답 : 1. ④ 2. ③ 3. ① 4. ② 5. ② 6. 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본 사 | T. 02)2004-8204 | F. 02)737-0698 |
| 경남지사 | 010-3860-7008 | 성낙두 |
| 부산지사 | 010-5640-8883 | 이도경 |
| 대구지사 | 010-2813-8008 | 손문철 |

| | | |
|---|---|---|
| 전남지사 | 010-2629-1508 | 양행선 |
| 전북지사 | 010-8642-7733 | 조동제 |
| 충청지사 | 010-8341-0560 | 유재상 |
| 영주지국 | 010-9373-3778 | 박영애 |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23 반야심경 ②



▶한줄 요약
우리는 태어남을 좋아하고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것이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성품이 빈 것(空)이요,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이 반야의 사상입니다.

# 절대적 가치 기준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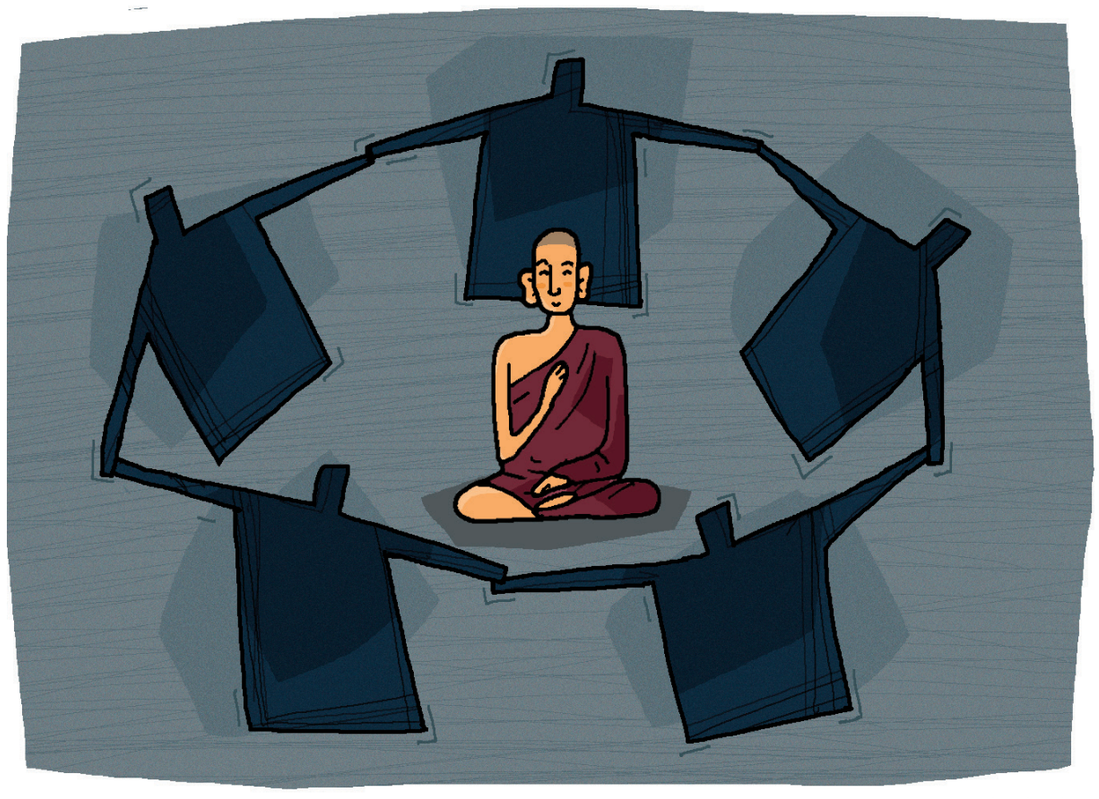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깨끗함은 좋고 더러운 것은 싫어**
**상대성이 본질적으로 모두 空하며**
**가치가 동등하다는 게 반야의 사상**

### '나'를 공부하다

앞서 아이가 자전거타는 법을 익히는 예를 들었습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뒤에서 붙잡아 주니 두려워도 페달을 밟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태어날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탔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 역시도 지금 이 아이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잘 타게 되었습니다.

〈반야심경〉의 첫머리는 관자재보살(관세음보살)도 이렇게 공부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괴로움을 건너느니라"라는 구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행할 때'란 말은 반야바라밀다 공부를 할 때, 반야바라밀다의 깊은 경지를 향해 나아갈 때라는 뜻입니다.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을 말해봅시다. 보통 사람들은 '나'라는 정체를 그리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인데, 뭘 더 말하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냥 '나'에게 맛난 음식 먹여주고 멋진 옷을 입히고 안락한 소파에 눕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는 이렇게 애지중지 보살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츰 무너지고 그러다 파괴됩니다. 늙고 병들어가는 과정이 그것이지요. 이럴 때 사람들은 영양제나 보약을 먹고 더 안락하게 눕는 것, 병원에 더 열심히 다니고 운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한번 들여다보자, 대체 무엇으로 이뤄져 있기에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 보살펴도 무너지고 달라지는지…."

이런 사람을 수행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색과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서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다섯 가지로 이뤄져 있었구나"하고 알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근본적인 구성요소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오온이 강하게 집착되어 있는 것을 '나'라고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이 오온이 시절인연을 따라 무너지고 소멸하는 현상을 만나도 당황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치를 완벽하게 꿰뚫어 알아서 더 이상 나라는 생각에 얽매여 번뇌를 일으키거나 악업을 짓지 않는 사람은 성자가 되는 것이고, 그 성자 중에 최고의 성자를 아라한이라 부릅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면 사실 수행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오온으로 이뤄져 있다고 아는 것-이것도 대단한 깨달음입니다. 불교대학에서는 이 오온을 '색·수(느낌)·상(생각)·행(결합)·식(식별)'이라고 배웁니다. 그리고는 넘어갑니다. 오온이 그 다섯 가지라고 배우는 것으로 끝내는 거지요. 하지만 진짜 공부는 내 몸과 마음에서 색이 어떤 부분이고, 수, 상, 행, 식은 어떤 부분이고 역할을 하는지를 깊이 사색해야 합니다. 불교교리 공부는 바로 이런 세밀한 곳에 깊이 사색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면에서 이런 걸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으니 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아라한이면 다 된 거다?

아무튼, 이걸 완벽하게 공부하여 번뇌를 완전히 없앤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허걱! 알고 봤더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오온'이 '자기 성품이 빈 것' 즉 '공한 것'이라는 관찰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휴~ 산 너머 산입니다. 하지만 불교교리는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아라한이 도달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깨달음의 경지가 모든 것이 빈 것이다, 즉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 그동안 내가 공부하여 밝혀낸 진리가 자기 성품이 빈 것이로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하다'라고 안 그 자체에 머물면 철저하지 못한 공이니까 다시 또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관찰하고 또 관찰하며 도달하는 경지마다 빈 것이라고 알아내는 것, 이것이 프라즈냐(prajnā)요, 이 프라즈냐를 소리 나는 대로 한자어로 옮긴 것이 '반야'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수행은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모든 것은 다섯 가지 구성요소 즉 오온으로 이뤄져 있다는 앎의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오온이 공한 것이구나라는 앎까지 나아가니까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 색즉시공이라니?

여기까지 도달한 관세음보살은 아직 아라한에 머물러 있는 사리자에게 이 이치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릅니다.

"사리자여!"

이름을 일단 부른 뒤에 오온이 공(빈 것)이라는 이치를 일러주는 것입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 상, 행, 식도 그와 같느니라."라고요. 불자님들 집에 가보면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는 사자성어가 크게 쓰인 액자를 자주 봅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색즉시공'만 이야기하면 100점 만점에 20점이라고 말합니다. '색'은 오온의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어서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뒤에 나오는 '수상행식'도 곧 공한 것이라는 걸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말하려면 '오온즉시공 공즉시오온'이라 해야겠지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나가도 될까요?

관세음보살(관자재보살)은 다시 한 번 "사리자여!"라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같은 보통의 불자가 아니라 자기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킨 아라한인 사리자에게 법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리자여!'라는 호칭 대신에 "아라한이여!"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보살마하살이 아라한을 공부시키는 경이 반야심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라한인 사리자를 불러놓고 이번에는 공(空)의 경지 안에서 법문을 들려줍니다.

한글반야심경에서는 "이 모든 것은 공하여~"라고 이어집니다. 한문경전으로는 "시제법공상~(是諸法空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한문에서 제법(諸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諸法)은 공이 모습을 띠고 있는 것(空相)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이 공한 것(空)인데,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서로가 제각각 다른 모습,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잖아요. 개성 넘치는 그 모든 것은 모두 공(空)이 인연 따라 모습(相)을 띠고 드러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엄청 크거나 아주 작은 것, 매우 깨끗하거나 몹시 지저분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 차 있는 현상이나 사물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태어남을 좋아하고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큰 것을 좋아하고 작은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인 것이라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자기 성품이 빈 것(空)이요, 그런 면에서는 가치가 동등하다는 것이 반야의 사상입니다. 그러니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공한 것이 모습을 드러낸 것일 뿐이니, (본질적으로 말하면)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고 더러운 적도 깨끗한 적도 늘어난 적도 불어난 적도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휴~ 어렵다, 정말 어렵다!

이런 이치를 글로 써내려가는 나도 갑자기 혀가 꼬이는 것만 같습니다. 역시 반야의 이치를 말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렵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은근히 만나고픈 이상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키는 몇 cm 정도는 되어야 하고, 얼굴은 탤런트 누구처럼 생겼으면 좋겠고, 집안은 이렇고, 학벌은 이렇고, 성격은 이렇고, 연봉은 이런 정도고….

그런데 내가 품고 있는 이상형의 기준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어서 내 입장에서는 000cm 터 정도면 키가 큰 편이나 누군가에게는 보통 수준의 키일 수도 있습니다. 연봉 몇 천만원 정도라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건 꿈에서나 바랄 만한 액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정도는 '껌 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절대적인 가치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 자기 믿는 마음 변치 말고 항상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인신난득 불법난봉이라는데**

**질문** 불가에서는 인신난득 불법난봉이라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데 불법 만나기 어렵다는 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몸 탄 것이 얼마나 아픔을 견뎌 오면서 참고 참고 견뎌 왔는지를. 여러분은 살림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 볼 여지가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나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더러 "좀 쉬시죠. 어디 저런 데 좀 가십시다." 이럽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더 외려 쉬는 게 아닙니다, 고달픈 거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아주 나도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답답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때는 한번 이렇게 검토합니다. 구경을 합니다. 과거로 한번 수억만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거쳐 옵니다. 그러고선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을 살피고 한번 나를 다시 봅니다. 이럴 때 나는 그 생각, 그렇게 구경을 하고 한번 돌아오는 고 한 순간의 생각에 나는 벌써 나도 모르게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럴 때가 나는 제일 쉬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겪어 보지 않았고 또 실감 나지 않는 일이 돼서 모르시겠지마는 이런 걸 얘기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실감 날 리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도 그 돌에 있는 그 느끼, 또 흙의 느끼 그런 것만 걷어 먹고 남하고 싸움하기 싫고, 또 연쇄적으로 잡아먹어 가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싫고 한 그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돌 틈에 가서 살면서 그저 남을 피해서 그런 거라도 걷어 먹고 살다가, 천 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 된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서 사람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천 년을 지내고 난 뒤에야 바로 인생이라는 한 꺼풀을 쓰고 나옵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은 말고도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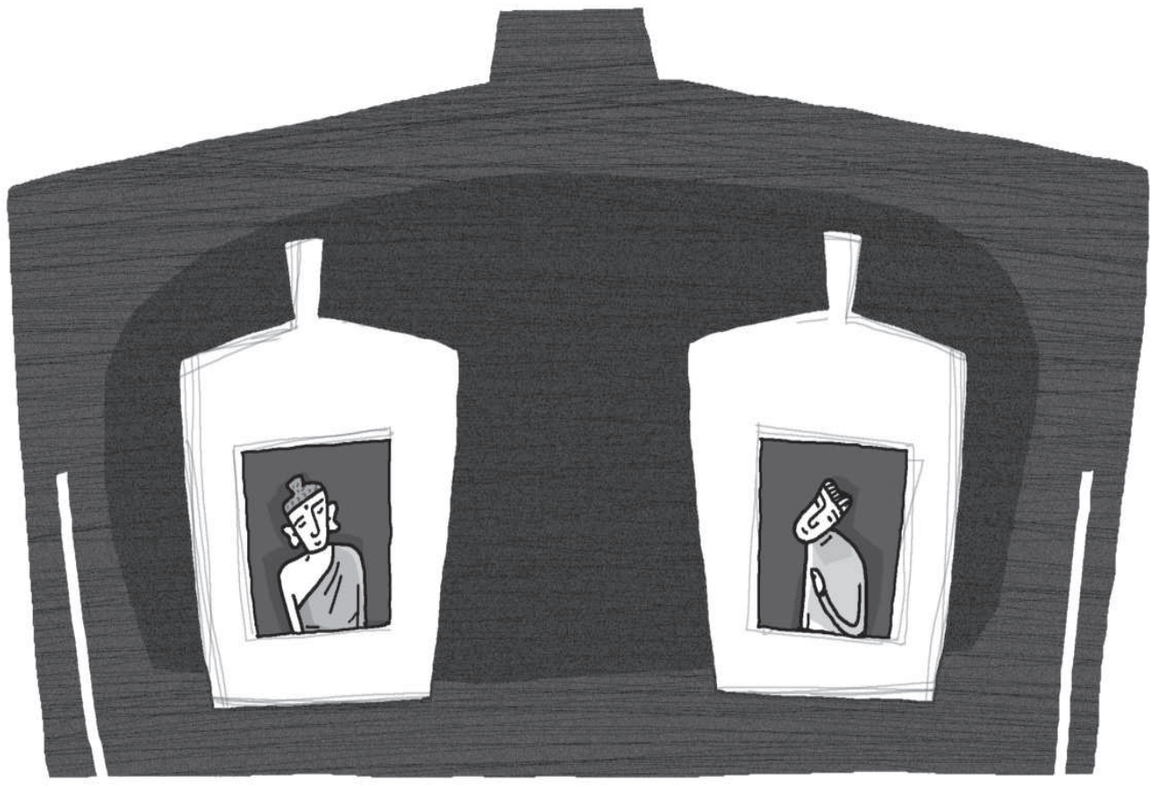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게 천 년을 견디면서 남하고 싸움하지 않고, 남에게 시비를 걸지 않고, 남을 해롭게 안 하고 그렇게 했건만 인간으로서의 한 꺼풀을 쓰고 나온 그 인간의 모습이 어땠던가? 한 나무의 수많은 이파리들이 그저 가을이 오면 바들바들 떨면서 단풍이 져서 어디로 흔적 없이 하나하나 날아 떨어지는 거와 같은 인생살이. 한번 생각해 보신 점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동물들에 관한 건입니다. 동물들은 남들하고 또 싸움하기 싫어서 아주 인적이 없는 그런 곳에, 살 수도 없고 추기도 면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그저 눈을 헤쳐 가면서 풀뿌리만 먹고 사는 그러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또는 동물들도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데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들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위에서는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아래서는 추기가 오고 먹을 것은 별로 없고, 또 어느 때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산골짜기의 물이 흐르는 데서 일 년에 하나 얻어먹기 어려운 생물이 나오기를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그런 데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라면 기독교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로 뭉친 그 뜻을 말합니다. 물이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번 요행히 하나 얻어서, 전에는 그런 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산골짜기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거를 일 년에 몇 번 얻어먹기 어려웠고, 그렇게 살면서도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면서 또 남하고 어울리지 않고 외롭게 이렇게 살면서도 그 천 년을 견뎌야 사람의 꺼풀을 쓰고 또 이 들에 내려옵니다.

그런 과정, 그 어려움을 겪으며 사람의 꺼풀을 썼는데, 그 사람의 꺼풀이 한갓 나무 이파리와 같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모두를 아신다면 목을 놓고 앉아서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하늘을 보고 하루 종일 쳐다보고 껄껄대고 웃어도 시원치 않고 하루를 내려다보고 땅을 치고 울어도 시원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연들이 수없이, 겹겹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는 또 어우러졌습니다. 인간의 한 이파리로 태어나서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한 나무에 모두 있다가, 그저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면 울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이파리는 또 떨어지면서 바로 간다는 얘기도 없고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떠나갑니다, 바람에 날려서. 그러나 거기 붙어 있는 것은 아직 붙어 있으니까 '너는 가면 어디로 가느냐'고 하면서 바로 친지처럼, 형제처럼, 부모처럼 같이 있다가 떨어지는 그 나무 이파리를 보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대로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렇게 해서 바람에 날리거든요. 그런데 그 바람에 날리는 그 낙엽은 그래도 생명이 소중한 거라, 그 몸 하나하나를 아주 허탕 내버리지 않고 그 땅에 도로 거름이 돼 줍니다.

그 낙엽이 수많이 떨어졌어도 그 모든 사람들의 발밑에 밟히는 것은 인간의 거름이 돼 주려고 밟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썩은 물이 바로 사람을, 죽는 사람을 살린다고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수없는 나날을 그렇게 걸어오면서 많은 것을 배워 왔고, 알아 왔고, 진화되어 왔습니다.

나는 때에 따라서 나무 밑을 걸으면서도 혼자 걷기 좋아하고, 비 맞고 걷기 좋아하고, 눈 맞고 걷기 좋아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그럽니다. 누가 있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혼자 걸음을 걸을 때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나뭇잎 하나하나처럼, 길을 가다가도 나뭇잎이 떨어지면 '허, 또 하나 떨어졌군.'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이렇게 한번 중얼중얼거리고 갑니다. '임이시여, 임이시여. 나는 간단 말 없이 가지마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바로 당신 밑에 떨어져서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손을 한데 모으고 거름이 돼 주렵니다. 당신이 추우면 추기를 면해 드리기 위해서 덮어 주렵니다. 봄이 올 때에 따뜻하면 나는 당신의 거름이 진짜 되렵니다.' 하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지금 현재에도 한 이파리에 지나지 않게 한 인생이 뜬구름처럼 그냥 그냥 훌쩍훌쩍, 훌쩍훌쩍 가버립니다. 그렇게 바람과 구름같이 스쳐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또는 그렇게 스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급한 일이 생겼어도 그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일임하라

☞ 19면에서 계속

쳐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스쳐 가면 스쳐 가는 대로 다른 모습으로 또 옮겨 가고 했던 그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 사람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겹겹이 겹쳐진 인생의 그 생로를 거쳐 오면서, 슬프게 아프게 거쳐 오면서도 그걸 이겨 나가고, 그 비호같은 살을 에어 내는 바람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겪어 나와서, 오늘날에 인간이 돼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금방에 금이 모이듯이, 넝마전에 넝마가 모이듯이 우리는 예전에도 같이 한자리에서 그렇게 에이는 그 아픔을 서로 견뎠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몸 벗기 전에 정신 차려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 작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질문**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오랜만에 옛 친구가 떠올라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내고 있었는데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연은 아니겠죠?

**답변** 그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인제 임산부가 어린애를 낳아야 될 텐데, 낳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고 때를 넘어서서 하든지 미리 낳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넘어서서 낳아도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그렇게 해서 굳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이걸 믿질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개별적인 마음이지만, 자기 근본에다가 놓고 믿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포괄적인 마음입니다.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나 물질세계가 포함된 한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깔축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개별적으로 혼자 뛰지 말고 같이,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손이 내 손이요, 모든 발이 내 발이요, 내 도량이요, 내 아픔이요, 내 몸,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야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리를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 조그마한 데서부터 이 경험을 해서 많이 쌓아 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적죠. 왜냐하면 물질로다 자꾸 자꾸 이렇게 좇아가고 이름으로 좇아가고 보는 데 좇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좇아가는 거를 다 거기다 놓고 그냥 그대로 하면 똑같은데 말입니다.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나, 누가 재산을 갖지 말라나, 누가 뭐 못 하게 하는 것도 없건만 왜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주인 거지 나는 관리인일 뿐이다.' 이러고 살아야 할 텐데 자기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자기의 참 자기이거든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질문** 얼마 전에 저의 친구의 권유로 모 회사에 투자한 것이 잘못되어 가산을 거의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저는 억울함과 죄책감으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 보려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대행 스님 법문을 보게 되어 마음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거 봐요. 어려운 일에 부딪혔다 하면 그걸 누가 부딪히게 한 겁니까? 다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부딪히게 한 거지 딴 놈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 내가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의 주인으로서 그것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생겼다 이럴 때는 그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일임해 버리고 놔 버리세요. 그럼 거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는 내 마음의 주인이 다 해결을 하고 보이는 데서도 마음의 주인이 움죽거리게 한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일체를 다.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어 가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지, 절에 가고 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부족하면 벌써 잘한다 하면서도 남한테 좋지 않게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모르죠.

그래서 하나하나 일거일동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항상 그 마음 변치 말고, 자기 믿는 마음을 변치 말고 항상 타의에서 구하지 마세요. 어느 누가 있어도 타의에서 구하게 되면 마가 생겨서 달려든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네 집안이 산란해지고 우환이 생기고 그러는 걸 누구한테다 항거합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산란하면 살림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주인한테 탁 일임시키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항상 이렇게 걸어가도 무겁게 걸어가게 되고 바람이 불어도 끄덕도 안 하고 그냥 무겁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삼 톤 무게가 돼! 그러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친다 해도, 삼 톤이라면 얼만 줄 아세요? 삼만 톤이라도 해도 되죠. 삼만 톤이 무겁게 걸어가는데 어디 바람에 쓸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볍게 그냥 사량으로서 '아이구! 이러면 좋단다, 저러면 좋단다' 내가 이러면 이것은 중심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질 않고 그냥 가볍게 되니까, 결국은 땅에 이렇게 발을 딱 디디면 삼만 톤이라는 게 무겁게 디뎌져야 비바람이 불고 뇌성벽력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겁게. 가볍지 않게.' 그래야 생활도 무겁게 값비싸게 돌아가고 내 몸도 값비싸게, 그, 무겁게 광채가 바깥으로 나며 향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한테 이익하게, 자기 중생을 자기가 이익하게 하니 어찌 남한테 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항상 남을 접하고 상대를 두고 살아나가는데 어찌 해가 남한테 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향기요, 그것이 빛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러니 그것이 보살행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이치예요. 그러니 우리가 종교라는 이름과 더불어 같이, 이 종교라는 이름 자체가 이름일 뿐이지, 우리는 한 배 타고 한 지붕 밑에서 지금 마음을 닦는 그런 공부를 참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래 닦을 것은 없으나 자기 마음들이 자기 마음들을 완전히 그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니깐 마음을, 그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쁜 일은 행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잘해라 이겁니다. 생각을 잘못한다면 내 육신도 고달프게 되고 가정도 고달프게 됩니다.

그러니깐 마음을, 그 중심을 탁 쥐고서, 한번 한생각을 낼 때 이 삼세 우주간 법계가 들썩들썩해야만 되지, 그렇게 가볍게 살면 가정도 가벼워지고 하는 일마다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바람에 쓰러지게 돼 있죠. 구덩이에 빠지게 돼 있고요. 그걸 누구한테 항거를 하겠습니까.

**졸음을 극복하고 싶어요**

**질문** 이번 동안거에 동참하여 정진을 좀 해 보고자 했는데 앉으면 졸음이 쏟아져 부끄럽고 속상합니다. 저도 한번 열심히 마음 밝혀 보고자 하는데 이 졸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하든지 간에 '나'를 만나면 되니까. 남자들은 애인을 만나고 여자들은 남자 애인을 만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방법을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 이 사람의 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 그 방법을 대기도 하거든요.

그 생각하기에 달린 거거든요. 생각이 그, 애인이다 이러면 아예 그냥 가까운 마음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그건 방편이지마는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이지. 그래서 딴 사람을 그려서는 안 되죠. 자기 내공의 그 주인, 그것을 내 주인 불에 있는 주인과 이 내 몸이 있는 주인과 한데 합쳐지기만 하면 그 물그릇은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깐 결국은 하도 졸리다니까 방법을 댄 거죠.

예를 들면 이 대통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대통을 이렇게 놔서 이 끄트머리만 삐죽하게 해서 턱 밑에다 딱 대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졸아도 여기 퍽 찔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깐 그걸 놓고선 앉아 있는 거예요. 만공 스님도 저 칼을 이렇게 받치고선 그러니까 졸리지 않죠.

또 어떤 선지식은 그랬죠. 대통이 이렇게 구멍이 뚫렸지 않습니까. 좀 어리석은 듯 해야죠. 고 구멍 뚫린 속에서 소 눈깔이 나올 테니 이거를 꼭 지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꼭 그걸 노려보고, 하여튼 한 시도 눈을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지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요것이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이렇게 열 시간을 앉아도 바깥에다 두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안에다, 내공에다 집중을 해야지. 그러곤 자꾸 이렇게 탁탁 쳐 주는 겁니다, 주인공에다. 탁탁 쳐 주면 그게 결국은 뚫리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애절복절하는 거죠. 애절복절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애절하게…. 그래서 옛날에 선지식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점이 있죠. 고양이가 쥐 노리듯, 아주 배고픈 어린애가 엄마 젖 찾듯 이렇게 하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이건 꼭 되게끔 돼 있다고요.

그리고 수행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이런 게 불편하다 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거를 내공에다 그냥 놔 버리세요. 일임시켜 버리세요. 그럭하고 놔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닿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히 정진하세요.

> **수행이 안된다 할지라도 그냥,**
> **이런저런 게 불편하다 하는 것을 내공에다 그냥 놔 버리세요.**
> **일임시켜 버리세요.**
> **그럭하고 놔두면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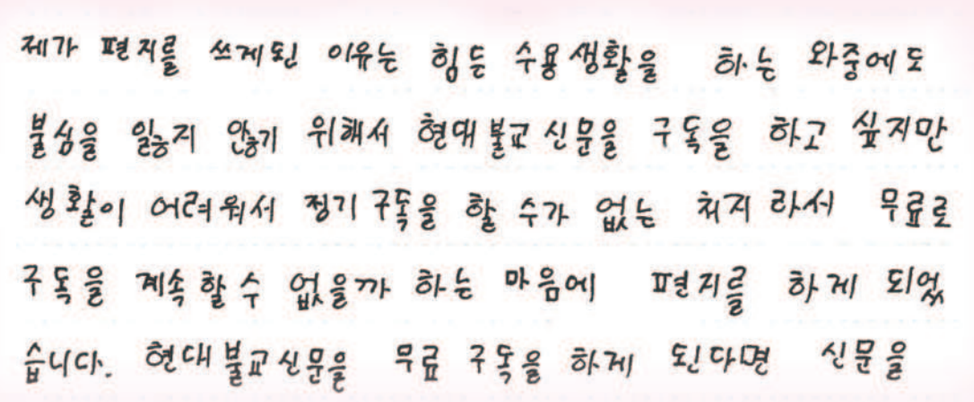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㉘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1)

# 알아차림, 분노를 멈추는 힘

상희(가명)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꾹꾹 누르고 있었다. 벽 쪽을 응시하다 깊게 숨을 내쉰 후 그녀는 울먹거리며 말했다.

"집에 들어오는 아이를 향해 컵을 던졌어요.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어딜 들어오냐고 악을 쓰는 내가…"

상희 씨는 자신이 괴물 같았고 그 순간 얼음처럼 얼어붙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작은 거짓말이 원인이 됐다. 아이의 소소한 거짓말은 자주 반복됐고 자신을 속이는 아이의 행동을 기만이라 여겼다.

상희 씨에게 '기만'은 신뢰를 깨는 두려움이었고 관계를 파탄 내는 원인이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불륜으로 아버지를 속이다가 끝내는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간 것이 그녀 인생의 첫 기억이었다. 짐을 싸서 나가는 엄마의 뒷모습과 아빠의 우는 목소리. 겨우 4살 때, 그녀의 기억은 마치 사진을 찍은 듯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단정한 옷차림과 선한 눈매, 듣기 좋은 목소리로 호감을 주는 그녀의 부드러운 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분노 폭발이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자책. 이젠 자신으로 향하는 분노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분노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다. 파괴적이고 폭발적 성격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게 후유증을 심각하게 남기는 아슬아슬한 감정이다. 이 감정은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빈도가 잦아 지치게 만들고 조절이 힘들 정도로 그 힘은 강력하다. 분노는 강력한 파워 트럭과도 같다. 트럭의 성능과 특징, 운전법을 잘 알고 다뤄야 하는 것처럼 분노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분노에 대한 이해로 조절을 능숙하게 하도록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분노는 원시 시대부터 살아남기 위해 장착된 인류의 생존 장치와도 같다. 강한 분노는 뇌의 변연계와 연결돼 죽음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이자 공격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원시 시대와 달라진 현재에도 분노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아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일 뿐, 사실 나쁜 감정이란 없다.

분노 감정은 무의식적인 조건반사이자 공포와 불안, 두려움 등 다른 감정들과 연결돼 있는 정상적인 감정 반응이다. 몸에 있는 손가락과 발, 팔처럼 인류의 주요한 기능이며, 부정적 상황을 알려주는 메신저이다. 앞서 분노를 위험 경보이자 신호로 알면 스스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분노를 잘못 조절하면 파괴적이고 거칠어 상처를 남긴다.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이다.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부하고 밀어내면 조절하는 힘을 배울 기회가 없을뿐더러 감정은 그대로 남아 신체화(내과적 증상 없이 몸이 아픈 증상)와 우울증, 감정불감증 등 다른 문제의 원인이 된다.

**부처님께 화살을 쏘려고 한 꾹꾸따밋따**
**분노를 알아차림 위한 대상으로 삼아야**

분노 감정에 미숙한 사람들은 분노 그 자체를 위험으로 여기고 회피한다. 이런 경우 불안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대부분은 관계가 깨질 것이란 두려움과 상대가 자신을 떠날 것이란 걱정이 앞서 무작정 참게 만들거나 회피하게 한다.

분노 감정에 미숙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분노를 보는 순간 달려가는 유형이다. 분노라는 신호탄을 외면하지는 않지만, 즉각 반응해 시행착오와 후회라는 결과가 번갈아 나타난다.

분노 감정에 미숙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이다. 알아차림을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신호를 먼저 알고 보는 것이다. 분노를 보고 나서 일단 멈추는 시간이다. 알고 멈추는 것과 참는 것은 다르다.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침착하게 알아보는 단계를 위한 첫걸음이다.

"알고 멈추는 것!"

분노를 조절하는 핵심 열쇠로 먼저 소개한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가? 제3세대 인지행동치료로 뛰어난 효과를 증명한 심리치료 기법 DBT(Dialectical Behavior Therapy,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첫 단계이고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이 글을 시작으로 분노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알고 멈추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도 안내하고자 한다.

〈법구경〉에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해 부처님께 화살을 겨눈 사냥꾼 꾹꾸따밋따가 나온다. 사냥꾼이었던 그는 그물에 짐승이 한 마리도 걸리지 않은 것을 알고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이 잡은 짐승을 풀어줬다'고 생각했다. 머리 꼭대기까지 솟아오른 화를 삭이며 꾹꾸따밋따는 숲에 난 발자국을 쫓아다녔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을 보았고, 자신의 짐승을 풀어준 사람이라 여기며 죽이겠다고 결심하게 된다. 활을 꺼내 들고 시위를 메겨 활줄을 팽팽하게 당긴 그의 몸을 부처님은 신통으로 마비시켰고, 활을 쏠 수 없게 만들었다. 일단 멈추게 하신 것이다.

꾹꾸따밋따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부처님은 그의 몸을 마비시켜 두신다.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의 신통처럼, 분노 감정을 알아차리고 멈추게 할 마음의 힘이 있는가? 부처님의 신통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대상을 알고 대상(四念處, 사념처)을 알아차리(Sati)는 지혜'가 바로 신통이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㉒ 걷기와 혈액 순환 – 발바닥과 종아리

#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걷기로 돌보자

### 인간만 필요한 하지 혈액 순환

사람의 혈액 순환 구조는 다른 동물, 심지어는 영장류인 원숭이와도 확연하게 다르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혈액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은 심장, 딱 하나다. 하지만 인간은 심장과 더불어 종아리 근육이 작은 심장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심장 아래로 내려간 피를 다시 뿜어 올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네 발로 걷거나,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보조 역할을 하는 동물은 굳이 하체의 피를 상체로 뿜어줄 기관이 필요치 않는다. 모든 신체 기관의 높이가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심장의 힘이 비슷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인간은 맨 위의 머리와 맨 아래에 있는 발의 높이가 그야말로 신체의 길이만큼 차이가 나고, 그만큼 중력의 힘을 더 받는다. 게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두뇌는 부피에 비하여 피를 많이 필요로 하여 15% 이상의 피가 두뇌를 순환한다. 심장은 위로 뿜어주는 힘도 강해야 하는 데다, 하체로 내려간 피를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

사람의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필요로 하는 피도 많아지고, 혈액 펌프인 심장도 힘있게 움직여야 한다. 이때 보조 역할을 하는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신체 전반적인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혈관도 변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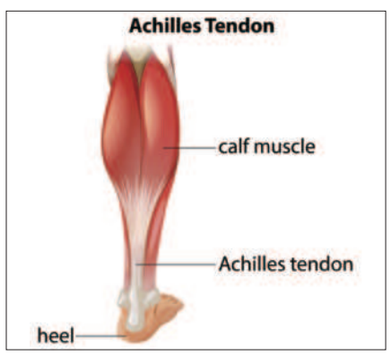
### 종아리의 혈액 순환 역할

심장이 혈액을 펌핑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두 번째 혈액 펌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운영하는 사람은 드물다.

건강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몸 혈액의 양은 5000cc다. 이 가운데 70%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 신체에 보내져야 하고, 또한 중력 때문에 하체로 몰린다. 그런데 하체로 보내진 피를 다시 상체로 끌어올리려면 심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심장의 부족한 힘을 보충해 주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다. 종아리의 '밀킹 액션(Miking Action)'이라고 하는데, 걸으면서 종아리 근육이 팽창했다가 가늘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움직임이 마치 소의 젖을 짜는 모습과 비슷해서 붙은 이름이다.

종아리 동맥 주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관의 압력을 증가시켜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중이라는 신호다. 이처럼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다리의 정맥에 모여 있는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도록 설계됐다.




종아리의 정맥은 인체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끝낸 혈액을 저장하는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에서 짜낸 혈액이 정맥계를 따라 밀려난다. 다리 정맥의 단방향 판막은 혈액이 심장을 향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한다. 이 판막은 중력에 의하여 피가 아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걸을 때 발도 발바닥에 있는 피를 위로 뿜어주는 역할을 한다. 발에도 작은 정맥 저장소가 있기 때문이다. 발을 내딛는 초기 동작에서 발에 체중이 실리면서 발 정맥 저장소의 혈액이 짜내져, 종아리 저장소로 보내진다. 그런 다음 단계의 후반 단계에서 종아리 근육이 수축해 대항해서 다리 위로 혈액을 펌핑한다. 역시 발과 종아리 사이에 있는 판막은 혈액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고 중력이 혈액을 다시 아래로 당기는 것을 막아준다.

비행기나 자동차 좌석처럼 장시간 움직이지 않거나 책상에 몇 시간 앉아 있으면, 종아리 근육이 많이 수축되지 않아 혈액이 고인다. 그래서 걷기가 다리 혈액 순환에 좋다. 걷기는 혈액 고이는 것을 방지하고 심부 정맥 혈전증(DVT)이라고 하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한다.

### 종아리, 걷기 그리고 혈액 순환

모든 건강의 기본은 피가 잘 통해야 한다. 한방에서 기와 혈이 잘 통해야 한다고 하고, 양방에서도 피가 잘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골고루 돼야 건강하다고 한다. 혈액 순환이 잘 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은 바로 걷기다.

심장이 나쁘면 걸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골다공증이면 걸어서 몸에 적당한 충격을 주며 뼈를 다져야 한다. 비만이면 걸어서 필요 없는 지방을 태워야 한다. 고혈압이면 걸어서 혈관을 강하게 해야 한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걸어서 자연과 세상을 보며 풀어야 한다. 하지정맥류라면 걸어서 혈류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 종아리를 강하게 하는 방법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도구나 시간이 필요치 않다.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걸어 다니는 것이다. 1주일에 3~4회, 거리로는 10km 이상이 좋다. 야외를 걷지 않을 때는 발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까치발 운동을 한다. 까치발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서 몸 전체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장딴지 근육 안의 심부정맥 내의 혈액을 심장으로 뿜어주면서 하체의 혈액을 상체로 올라가게 한다. 그리고 종아리를 다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마사지하는 것도 좋다.

〈비바미(Viva!me) 대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 불교TV 영상포교 30년

BTN불교TV는 한국불교의 대중화와 청년포교를 위해
부처님 말씀과 대덕스님들의 귀한 법문을 전 세계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앞서 뛰겠습니다.
아직 BTN 붓다회 회원이 아니시라면 지금 당장 가입하시어
BTN불교TV를 응원해 주십시오.
BTN붓다회 회원에게는 다양한 혜택과 특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입문의 1855-0108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 중생 아파하는 그 곳에서 붓다볼 法音 전하고 싶어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과 세상을 아름답게 수놓은 단풍들을 보며 필자 또한 부처님 법 인연하여 먹물 들여온 시간만큼 이제는 부처님께 지은 빚을 갚을 일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생각해본다. 오늘 나에게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밥값은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머물고 있는 봉녕사에서 마주치는 많은 대중들과 신도, 찾아가는 곳 마다 만나는 여러 인연들이 나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듯하다. 이런 귀한 인연들이 언제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어주고 삶의 원동력이 되어 준다.

봉녕사에서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어김없이 봉녕사 육화당에서 붓다볼 소리가 은은하게 도량 밖으로 새어 나온다. 필자가 진행하는 '붓다볼 힐링명상' 일요법회 시간이다. 붓다볼은 일반적으로 싱잉볼이라는 단어로 알려져 있다. 이 싱잉볼을 불교에서는 수행하고 법을 전하던 도구의 하나로서 붓다볼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고는 '붓다볼 명상'이라 이름 붙였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아온 법회이다.

이런 붓다볼 명상은 봉녕사 템플스테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선명상 대중화 시대, 불교는 몸과 마음이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작은 쉼과 힐링을 제공한다.

필자는 오늘도 템플스테이에 온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자 붓다볼 앞에 앉는다. 스트레스에 찌든 직장인들, 학업에 지친 학생들 모두에게서 인생이란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들에게 붓다볼의 고요한 울림은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문이 되어주기도 하고, 나와 우주가 하나 돼 공명하는 불이법의 진리를 전해주기도 한다. 분별이 없는 그 울림에 갈등이 소멸되어 가고, 무너진 몸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 사바세계 모든 중생들이 아파하는데 우리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

봉녕사는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온다. 올해의 특별한 기억은 봉녕사를 찾아주셨던 주한외국인대사 분들과 유엔사령부 외국인 가족분 들에게 붓다볼 명상을 경험하게 해드린 것이다. 이들은 명상을 마치고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함박웃음을 내게 선물해 주었다. 외국인들이 사찰에서 경험하는 붓다볼 체험은 불교가 전하는 내면의 평화로움과 자유로움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수원구치소 법회에서도 붓다볼 소리를 전한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에게 붓다볼 소리는 관자재보살의 깊은 반야바라밀다의 법음이기도 하다. 불안과 근심걱정으로부터 한순간이라도 평화로울 수 있는 지혜의 소리로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사바세계 어느 곳도 마다하지 않으련다. 중생들이 아파하는 그곳에 있고 싶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을 붓다볼에 실어 소리 없는 붓다의 메아리가 될 수 있기를 발원해 본다.



선정 스님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교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⑪ 혜능 대사의 오도송

##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번뇌가 있으리오**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와 같은 것이 아니며(菩提本無樹)**
**밝은 마음 또한 거울경대(鏡臺)와 같은 모양이 없네.(明鏡亦無臺)**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佛性常淸淨)**
**어디에 번뇌가 있으리오.(何處有塵埃)**

〈돈황본 육조 법보단경〉

혜능(慧能, 638~713) 대사는 당나라 사람으로 선종의 제6조 조사다. 그의 문하에 남악 회양, 청원 행사, 남양 혜충, 영가 현각, 하택 신회 등 기라성 같은 제자가 나타나 중국 선불교의 황금시대를 주도하였다.

선종은 팔만대장경의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수행하는 경전불교를 거부하고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주창한다. 당시 금보다 귀하여 구하기 어려운 경전에 의지하지 않고, 누구나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정(명상, 알아차림)을 통하여 자기의 본래마음인 불성을 찾아 스스로 부처가 되자는 새롭게 일어난 실천불교 운동이다.

혜능 대사의 설법집인 〈육조 법보단경〉은 선종의 소의경전이다. 제자인 법해 스님이 모아서 기록하여 편찬한 선사어록이다. 혜능 대사의 설법 내용이 부처님 말씀처럼 훌륭하다고 하여 '경(經)'이라 존숭하였다.

혜능 대사의 오도송은 신수 대사와 함께 견성오도를 읊은 오도송의 시초로 〈육조 법보단경〉에서 전하는 드라마틱하고 전설적인 게송이다. 1·2구 "깨달음은 본래 형상이 있는 보리수와 같은 것이 아니며, 밝은 마음(거울) 또한 경대(鏡臺)와 같은 모양이 없네"는 〈반야경〉의 무아(無我) 공(空) 사상을 표현하였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실체가 없는 허망한 현상체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집착이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형상이 있는 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깨달음을 보리수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마음 역시 실체가 없으므로 경대에 비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깨달음도 마음도 형상이 없는 무상(無相)이며 공(空)이다.

3·4구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청정한데, 어디에 티끌(번뇌)이 있으리오"는 불성이 본래가 청정하고, 더구나 무명번뇌는 실체가 없는 환상(幻相)과 같이 공(空)한 것이므로, 우리의 본래마음은 티끌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는 마음의 본래자리를 읊은 것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인 불성(자성, 본래심)은 항상 공적(空寂)하고 청정해 번뇌의 티끌이 낄 수가 없다. 번뇌는 본래 그 실체가 없다. 홀연히 텅 빈 하늘에 먹구름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곧장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번뇌는 내 마음에 나그네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객진번뇌(客塵煩惱)라 하고, 본래 없는 본무번뇌(本無煩惱)라고 한다.

1922년에 발견된 돈황본 〈육조법보단경〉(당나라 때 필사본 편찬) 이후(송원시대)에 편찬된 △혜흔본 △흥성사본 △대승사본 △설숭본 △덕이본 △종보본에서는 혜능 대사의 오도송 3구인 '불성상청정(佛性常淸淨)'이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로 바뀌게 된다.

달마 대사가 2조 혜가에게 전승한 〈능가경〉의 교리가 복잡한 불성사상이 5조 홍인 대사에 와서 만민이 평등한 존재임을 밝힌 무아(無我) 공사상이 나타난 〈금강경〉이 혜능에게 전승되었다.

작금에 우리 교단에 선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일상의 삶 속에서 5분 선명상을 통해 본래의 자기 마음을 찾아 하루 5분이라도 부처가 되어 보자.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 사찰 이모지 누락과 종교 감수성

지난 2017년 취임 후 첫 성탄절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의 한 마디는 많은 파장을 낳았다. 다문화·다인종·다종교 사회인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은 이웃종교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과 유대교 신자들이나 불교와 힌두교 신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인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해피 홀리데이'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적 감수성'이 어떻게 발현이 돼야 하는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의 이모지에 사찰만이 누락돼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교 예배당인 '모스크'와 '메카 카바 신전' '힌두교 사원' '유대교 회당' 심지어 일본 토속종교인 신도의 '토리이(とりい)'까지 '종교적 장소' 이모지 카테고리에 자리 잡고 있지만, 불교의 사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종교를 상징하는 이모지에서도 불교는 '법륜'을 제외하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기독교 이모지는 십자가, 교회, 천사 등 6개에 달했다. 이 같은 '불교 패싱'의 상황은 애플사의 아이폰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어도비가 2022년 발표한 '글로벌 이모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응답자의 56%가 말보다는 이모지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임을 동의했고, 86%는 직장에서 이모지를 활발하게 사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지는 단순히 스마트폰에 탑재된 서비스 기능을 넘어 일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공공재의 성격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종교의 이모지가 누락돼 있다는 것은 해당 종교의 신도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하는 행위와도 같다. 실제, 불교 단체와 불교 관련 여행사의 포스팅 중에는 '일주문'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일본 신도의 토리이를 사용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제라도 '종교적 감수성'이 담긴 이모지로 수정되길 바란다.



김민재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 ‘삼국유사’ 읽기를 권하는 까닭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근현대 시기 우리 책 중에 가장 많이 읽힌 책을 골라보라고 한다면 〈삼국유사〉를 첫손가락에 꼽아도 좋을 것 같다. 그만큼 많이 읽혀지고, 그 내용이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되는 까닭이다. 일연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삼국유사〉에는 〈삼국사기〉에는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삼국사기〉의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필자는 ‘유사’의 의미를 ‘남겨야 할 이야기’ 혹은 ‘일연 스님이 남기고 싶어 했던 이야기’로 이해한다.

그런 이야기들 중의 하나가 ‘경덕왕·충담사·표훈대덕’조이다. 경덕왕이 충담 스님과 표훈 스님을 만난 두 가지 이야기가 졸가리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남산 삼화령의 미륵부처님께 차를 공양하고 오는 충담 스님에게 경덕왕이 차 한 잔과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노래를 지어 줄 것을 청하는 이야기이다. 충담 스님은 차 한 잔을 다려 올리고는 안민가(安民歌)라는 향가 한 수를 지어 왕을 훈계한다.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살면 나라와 백성의 삶이 저절로 평안해진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왕권을 계승할 아들을 얻기를 바라는 경덕왕과 표훈 스님의 이야기이다. 표훈 스님이 살펴보니 딸은 얻을 수 있으나 아들을 얻을 인연은 없었다. 그래서 경덕왕에게 묻는다. 아들을 얻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왕자를 얻겠느냐고 묻는다. 경덕왕은 왕자 얻기를 고집한다. 그 왕자가 후에 혜공왕이 되었는데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살해당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졌다.

**경덕왕·충담·표훈 스님 일화**
**두 스님의 왕에 대한 경책 담겨**
**일연스님이 묻는다 “답게 사는가”**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루는 것은 경덕왕과 충담 스님이 만나는 이야기이고, 경덕왕과 표훈 대덕이 만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핵심은 왜 경덕왕 시대를 기점으로 신라라는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는가 하는 대목이다. 일연 스님은 그 이유를 두 스님과의 일화를 통해서 제시한다.

충담 스님이 지은 안민가는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고 경덕왕에게 훈계한다. 사실은 왕이 왕답지 못하다고 훈계한 것이다. 훈계를 하는 충담스님에게 미륵부처님에게 차를 다려 올린 것처럼 나에게도 차를 다려 한 잔 달라고 경덕왕은 청한다. 부처님처럼 자신도 존중받고 싶어 한 것이다. 그런 왕에게 충담 스님은 존중받고 싶다면 왕답게 행동하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표훈 스님 이야기는 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먼저인지, 아니면 나라의 안정이 먼저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경덕왕은 아들을 택한다. 역시 본분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경덕왕의 위태로움을 들추어낸 이야기이다.

이야기의 주제는 명확하다. 무엇이, 혹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나라 안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또 반대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필자는 〈삼국유사〉를 읽을 때마다 일연 스님이 다음과 같이 묻는 것만 같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처음 세웠던 서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요?”

# 문화유산 환수, 이야기 담아내야

세간과 출세간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는 국보 경천사지십층석탑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건물 3층 높이 너머까지 치솟아 마치 하늘까지 닿을 기세이다. 탑의 시작부터 3층까지는 아(亞)자 모양으로 구성되고 그 후 10층까지는 정사각형으로 그 아리아리한 자태가 아찔하다. 그리고 섬세하게 불보살과 꽃 모양 등을 조각하여 이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탑이 있던 곳은 개성 부소산 경천사로 탑의 몸돌에 고려 충목왕 4년(1348)에 진녕부원군 강융 등이 후원하여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어 탄생 내력이 분명한 탑이다.

아름다움 이 탑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각으로 잘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츠아키는 조선 황태자가 하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탑을 난도질하여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를 안 영국인 어니스트 베넬은 〈대한매일신보〉에 약탈 사실을 폭로했고. 미국인 호머 헐버트는 전 세계에 이를 알렸다. 국제적인 비난이 계속되자 결국 조선총독부는 반환을 요청했고 탑은 1918년 돌아왔다.

그러나 탑의 안내문에는 약탈과 반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지 않고 간단히 일본으로 반출됐다가 돌아왔다고만 되어있다. 영문 안내문에는 그런 사실조차 없다. 탑의 반환을 위해 힘쓴 영국인과 미국인의 노고에 대해 단 한마디의 영문 설명도 없으니 탑의 탄생부터 지난 역사를 풍부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천사지십층석탑 日서 환수엔**
**미·영 도움… 안내판엔 내용 無**
**이야기, 문화유산 생명임 알아야**

이 같은 사정은 환수한 대부분의 유산도 비슷하다. 1945년 광복이후 환수한 유산이 약 1만 2000점이지만 반출과 환수는 간단히 기술하거나 이조차 생략한다. 우리는 피해국가로 피해 사실과 원상회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알리는 것이 유산의 역사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하는 일이다. 유산의 생명은 이야기이다. 다음세대로 전달되어야 할 것은 ‘이야기를 품은 유산’이다.

문화유산회복재단은 환수한 유산을 중심으로 ‘환수문화유산기념박물관’을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 묘소 인근에 조성 중이다. 환수박물관은 재단이 환수한 유산의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돌아와야 할 우리 문화유산을 소개할 것이다. 또한 전 세계인이 경험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공유하고 연대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은 ‘국제협력관’을 조성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체험관’을 만들어 실물 체험과 교육을 통해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수집가, 소장가의 세대교체로 인해 해외로 나가 있는 개인 소장품이 국적도 없이 외국 골동품 상인에게 팔려가거나, 은닉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환수박물관은 개인이 소장한 유물의 기증, 기탁을 촉진하고 협력, 지원함으로 위기에 빠진 유산을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유산신탁은행’을 운영할 것이다. 유산은 소유가 아닌 공유의 가치가 더욱 높다.

유산은 역사이므로 계승되어야 미래가 있다. 문화산업의 원천인 문화유산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일은 문화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社 說

# 이모지 ‘불교 패싱’ 적극 대응 나서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에서 서비스되는 이모지에 불교 사찰만이 누락돼 논란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사용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대대적인 이모지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과 연령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졌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인 종교에 대한 개선은 없었던 것 같다.

현재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기독교의 교회, 이슬람의 모스크와 카바 신전, 유대교 교당, 힌두교 사원 심지어는 일본 신도의 상징인 토리이까지 확인되지만, 불교의 사찰은 찾아볼 수가 없다. ‘불교’를 검색했을 때 확인되는 이모지는 ‘법륜’ 1개뿐이다. 반면 기독교 관련 이모지는 6개에 달한다.

이모지나 이모티콘 등은 모바일 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다. 한국인의 70%가 사용하는 갤럭시 스마트폰의 이모지라면 사실상 공공재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5억 명의 신도가 있고, 국내에서도 종교인구 1, 2위를 다투는 종교인 불교에 대한 이모지가 현격하게 적은 것은 최근 대두되는 ‘종교적 감수성’에 대한 반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불교계 역시 ‘사찰 이모지 누락’에 대해서 엄정히 따져 물어야 한다. 실제 어도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6%가 직장에서 활발하게 이모지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이모지가 가지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범불교적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다시 한번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도 이제 1년이 됐다. 조계종 제33·34대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퇴임 후에는 상월결사를 이끌며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자승 대종사의 발자취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傳法)의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승 대종사는 입적 전 가진 불교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법 원력 관련 이야기를 털어놨다. 1986년 대덕사 주지로 부임해 오전에는 기도하고 오후에는 기도와 축원을 하며 전법에 나섰다. 이런 노력으로 첫 법회에서는 5명이 오던 것이 1년 만에 150명으로 신도가 늘었다. 자승 대종사는 “전법에 몰두하니 불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전법의 소중함을 알았다”라고 밝혔다.

자승 대종사가 백담사 무문관에 방부를 들이고 상월선원에서 천막결사 정진을 하고, 만행결사 자비순례(2020)·삼보사찰 천리순례(2021)·평화방생순례(2022)·인도순례(2023)를 진행한 것도 모두 전법 원력을 결집시키기 위함이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자승 대종사는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라는 대중에게 화두를 던졌다.

자승 대종사가 던진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한국불교 화두이자 목표가 됐다. 특히 대학생·청년 전법은 미래 불교 성패를 좌우하는 대작 불사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승 대종사의 1주기, 다시 한번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2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2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27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 Specifications

| | |
|---|---|
| 순도 Purity | 금(Au999) |
| 중량 Weight | 31.3g |
| 크기 Size | 40mm |
| 발행연도 Year | 2024.9 |
| 외관 Finish | Proof |
| 판매가 | 4,499,000원 |

### Specifications

| | |
|---|---|
| 순도 Purity | 은(Au999) |
| 중량 Weight | 31.1g |
| 크기 Size | 40mm |
| 발행연도 Year | 2024.9 |
| 외관 Finish | Proof |
| 판매가 | 198,000원 |

### Product Details







### Package Design







### Product Details







###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